2021

서울아카이빙북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2021 서울아카이빙북〉은 메가도시 서울이라는 시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민들의 다채로운 일상 기록활동과 기록 이야기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발간되는 매거진입니다. 공공기록과 시민기록이 공존하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서울기록원은 기록을 매개로 다양하고 자발적인 기록활동을 지지, 지원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목욕탕 • 서촌 • 기억여행 • 마을기록활동가 • 예술치료기록 • 증언소설 <듣기 시간> • 시공간기록 • 기록앱 • 기록테크 • 디지털아카이브 • 동물보호아카이브 • 성곽+마을 아카이브 • 역사기록게임 • 인왕산 • 기록현상 • 마을과 기록 • 기록문화활동지원조례 • 주공아파트 • 대한국민현대사 • VR기록 • 호빵아카이브북 • 청년과 마을 • 재개발기록 • 복원 유튜버 • 기록하는 청년 • 서울의 공원 • 트렌드와 기록 • 서울기록페어 • 비누아카이브 • 스크랩북 • 기록채집 • 동대문구기억여행 • 생활변화관측 • 한강 • 시민기억 • 문학과증언과역사

'서촌화가' 김미경 작가의 '서촌옥상도5'이다. 작가의 관련 이야기는 26쪽에서 만날 수 있다.

여는 글

기록으로 우리 일상이 **풍요로워집니다**

기록, 아카이브, 아카이빙. 전통적으로 공공 영역 업무로 인식되거나 역사, 문헌정보 등 제한적인 분야와 관련된 키워드였던 이 단어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카페나 스튜디오 상호는 수두룩하고, TV프로그램 제목부터 게임이나 패션 브랜드 이름에서도 자주 마주칩니다. 자신이 만든 영상콘텐츠를 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자체를 아카이브라 표현하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반가운 단어에는 'rkive'도 있습니다. 코로나블루를 뚫고 전 세계에 긍정의 에너지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자신의 기록저장소라는 의미로 붙였다는데, 지향과 맞춤하게 어울리는 조어 감각이 돋보입니다. 구술기록활동가, 인권기록활동가, 시민기록활동가… 스스로를 '기록활동가'라 칭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기록 관련 출판물은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 기록이 빠르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소통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활동하는 '기록하는 시민'을 찾아나서는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도 덩달아 풍성해졌습니다. '2021 서울아카이빙북'은 그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기록활동 이야기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서울의 기록인'으로 목욕탕처럼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추억 공간부터 빛바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또 오래되거나 재개발되고 있는 동네에 간직된 역사와 시간을 스케치나 사진으로 남기는 작가와 청년들, 그리고 마을에서 활기차게 활동 중인 기록활동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아가 서울아카이빙북은 VR과 접목한 기록활동, 역사게임으로 재탄생하는 기록, 기록도우미 애플리케이션 등 종횡으로 확장되고 있는 기록 영역도 살폈습니다. 트렌드 인터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현상'이 되고 있는 요즘의 기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흔히 역사를 두고 승자의 기록, 권력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를 뒤집으면 기록하는 자가 승자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기록을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기록을 통해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서울아카이빙북 속 매력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찬찬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기록원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기록의 맛'을 누리고 음미하시길, 그 과정에서 더 새롭고 재미있는 기록활동을 발견하시길 응원합니다.

2021년 12월 **서울기록원**

사진은 이성민 감독이 '개포동 그곳' 프로그램에서 기억산책 참가자를 촬영해 전시회에서 발표한 작품사진 '다시 말하는 이름2'이다. 관련 내용은 60쪽이다.

Contents

PART 1
시민, 기록하다

SPECIAL THEME
서울의 기록인

10 서울의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하는 귀한 시선들
〈서울의 목욕탕〉 〈서울의 공원〉 펴낸
이재영·박현성

16 빛바랜 시간과 흐린 기억을 복원합니다
유튜버 복원 장인 '복원왕'

22 한 기록연구사가 도시의 기억을 남기고
공유하는 법
서울시 최초 자치구 디지털아카이브
'동대문구 기억여행' 구축한 최윤하 기록연구사

26 서촌 옥상에 서면 우리가, 서울이, 역사가 보여요
서촌 풍경 담는 김미경 작가

30 채집하고 기록한 '지금', 다시 작품이 되다
채집만화가이자 미술가 전지

34 소설가는 다양한 기록인의 수고에
빚진 직업이기도 해요
문학·증언·역사로 직조한 '증언소설'로
강렬한 울림 전하는 김숨 작가

FEATURE 1
시간을 기록하는 청년들

38 사라지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 기록이 있다
광진구 자양동 지역문화기록프로젝트 구상하는
'자양5동'

42 개발 이익으로 마을 기억공간 만들면 어떨까요?
이문동 청년기록단체 '이문모아'
조진한 대표와 김보경 씨

46 신문 스크랩북을 깨워 아들이 다시 낳은
'아버지 아카이브'
36권 스크랩북으로 재구성한 국민의 역사
〈대한국民 현대사〉 발간기

PART 2
기록, 넓어지다

FEATURE2
마을과 기록 이야기

52 서로에게 성장 기회 주는
마을활동과 기록의 선순환
금천구 '마을기록고수'들에게 듣는
기록의 맛과 효용

60 '개포동 그곳'이 기록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예의
개포주공아파트 나무와 공간 기록 전시한
이성민 감독

64 지상중계_ 2021 서울기록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오프라인 기록 행사 열리다

PART 3
서울, 기록으로 즐기다

68 기록과 일
VR기록, 입체적이고 미래적인!
VR기록플랫폼 구상하는 '파노시스' 문현성 대표

72 기록과 비즈니스
기록에 상상 버무린 우리 역사게임 즐겨 볼까요
인디게임 개발 스튜디오 '코스닷츠'
김회민·정재령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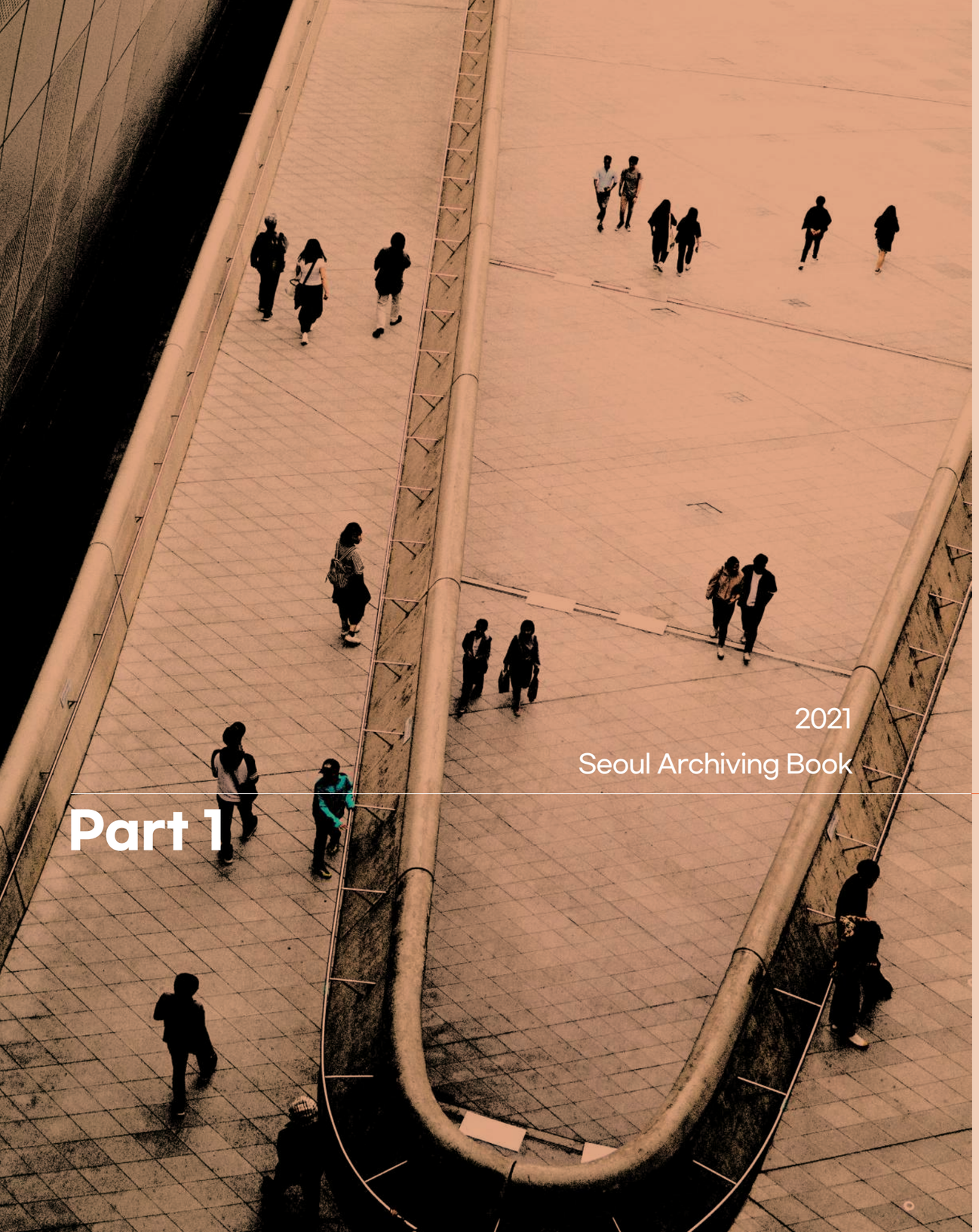
76 디지털로 만나는 세상
동물 지식 큐레이팅부터 사라져가는 마을기억까지,
디지털 속 별별 기록저장소
디지털아카이브 '카라아카이브'와
'한성대 성곽마을아카이빙'

80 기록테크
'기록잘러' 되는 법
효율 높이는 기록 도구 가이드

82 기록과 책
아카이브북, 유혹하다
기획 돋보이는
〈호빵책 : 디 아카이브〉 & 〈툴즈 Vol.1 비누〉

84 트렌드 인터뷰
빅데이터, 시민의 '기록현상'을 말하다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이 말하는
요즘 세대와 기록

88 화보
한강, 서울_ 시민의 기억이 흐르다



2021

Seoul Archiving Book

Part 1

시민, 기록하다

서울의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하는 귀한 시선들

<서울의 목욕탕> <서울의 공원> 펴낸
이재영·박현성

피곤과 묵은 때를 씻어낸 다음 개운한 마음으로 마시던 바나나우유 맛을 기억하시는지. 집안으로 들어온 샤워와 규모의 사우나 등으로 인해 가파르게 줄기 시작했지만 아련몽롱한 수증기와 함께 떠오르는 목욕탕은 여전히 쉼과 여유를 부르는 시대의 장소이다.

1997년 2202곳이던 서울시내 목욕탕은 2018년 기준 967곳으로 줄었고, 그중 30년 넘은 목욕탕은 132곳만 남았다. 출판사 '6699프레스'의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인 이재영 씨와 사진작가 박현성 씨가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확인한 결과다. 그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난 2021년 11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을 강도 높게 제한해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라진 목욕탕은 또 얼마일까.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던 공원은 사라질 운명이었다. 근거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공익 목적이라도 국가가 사유재산을 적절한 보상 없이 장기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판단이었다. 2000년 6월 30일 이후 20년 동안 지자체가 공원으로 매입하지 않은 부지는 공원 용도로서 효력이 상실되도록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몰될 서울의 공원은 관악산·북한산·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남산 일대 근린공원 등으로 면적을 합하면 여의도 크기의 33배에 해당할 정도였다.(참고로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속속 공원들을 매입해 일몰 위기를 넘기고 있다.

목욕탕과 공원, 당연히 우리 곁에 있으리라 여겼던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인식하는 감각. 이재영과 박현성에게 그 감각은 기록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적 행동을 불러왔고, <서울의 목욕탕>과 <서울의 공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기록으로 붙들어 두고 있는 이들의 마법이 시민들은 그렇게 고맙고 반가울 수가 없다.

①
서울의 목욕탕과 공원을 함께 기록한 기록자인 이재영(오른쪽)과 사진작가 박현성 씨
②
산호탕. 입구에 작은 계단, 세워진 자전거, 탕 안으로 쏟아지던 햇살과 어우러진 습기. 책을 무사히 끝내고 다시 가고 싶었던 목욕탕 1순위였는데, 다시 찾았을 땐 이미 사라진 뒤였다.
ⓒ〈서울의 목욕탕〉

"여기가 문 닫으면
이젠 또 어디로 가나?
마치 고향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려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기분이려나."
(<서울의 목욕탕> 중에서)

서울과 사라짐에 대한 감각

30년 이상 시간을 서민들과 함께해온 오래된 목욕탕을 포착한 〈서울의 목욕탕〉을 읽은 독자로서 〈서울의 공원〉까지 나왔을 때 쌍수를 들고 반겼다가 이내 궁금해졌다. 이재영 디자이너와 박현성 사진작가는 어떻게 '서울'과 '사라짐'을 한번에 감각하게 되었을까?

이재영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서울에서는 무언가 급하게 만들어졌다가 금방 사라지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이 지어졌다 다시 사라지기를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서울'과 '사라짐'을 함께 놓고 보게 된 것 같아요.*

③

④

③
금수탕은 다른 목욕탕과는 달리 탕 내부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라디오 소리가 나지막이 흐르고 있었다.
④
만복탕 로드뷰
⑤
〈서울의 ○○〉 시리즈를 진행하며 안 가본 동네가 없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구나. 그런데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믿을 수 없었다. 한강이 펼쳐진 전경과 들판 위 사람, 동물, 맑은 공기가 함께였던 궁산근린공원

이재영 씨는 두 책의 기획자이자 디자이너 그리고 책을 펴낸 출판사 6699프레스의 대표이다. 그런데 그이 말처럼 서울에 사라지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왜 목욕탕이었을까.

이재영 *목욕탕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빠와 목욕탕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가려고 보니 동네에 목욕탕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하고요. 목욕탕은 대형화되어 '사우나' '찜질방'으로 바뀌었고요. 그때 내 주변에 목욕탕이 언제부터 보이지 않게 되었나, 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이 생겼어요.*

박현성 씨는 서울의 목욕탕과 공원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한 사진작가이다. 재영 씨는 〈서울의 목욕탕〉을 기획하던 초기부터 사진이 중심이 되는 책이라 사진작가가 누구인지 무척 중요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한 전시장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났다. 수많은 사진 가운데 딱 한 장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작가가 누구지?' 하고 찾다가 현성 씨를 만나게 됐다. 이 디자이너가 서울의 목욕탕을 붙들어 놓자고 제안했을 때 박 작가는 한 번에 '오케이'를 외쳤다.

박현성 *'서울의 목욕탕' 프로젝트를 제안받을 당시 사라지는 것과 남겨지는 것들에 물음을 던지며 가족의 부재에 관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남겨진 엄마와 형의 시간을 담은 작업이었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잘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라지고 난 뒤에야 보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빛나는 것은 언제나 순간이고 저는 그것이 과거로 변하기 전에 잘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콤팩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제가 마주한 작은 순간들을 담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던 터라 더욱 진지하게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래된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현대화를 중시하고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는
동네에 있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낸, 이겨낸 터잖아요."
(<서울의 목욕탕>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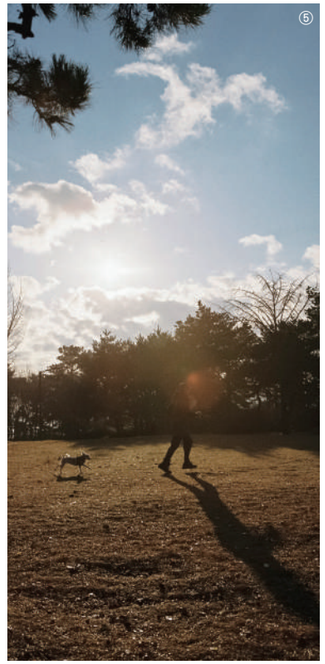
조사했어요. 처음엔 전화로 섭외를 했는데, 그리 효과적이지 못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었죠. 목욕탕 입구에 있는 계산대 조그만 구멍 사이로 허리를 굽혀 섭외를 시도하다 퇴짜 맞는 일도 많았어요.
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연합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당장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거 같아요. 서울시 홈페이지뿐 아니라 서울환경연합, 언론 기사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듣고 보니 더욱 쉽지 않은 작업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퇴짜, 헤어드라이어로 카메라 말리기… 사연 많은 기록 과정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면 끝이다. 이 명백한 사실이, 사라지기 전에 붙들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긴박하고, 중요하고,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마음을 샘솟게 한다.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방법을 찾게' 만든다. 서울의 목욕탕과 공원을 기록하는 과정은 어땠을까?

이재영 *목욕탕도 그렇고 공원도 장소의 위치, 특징, 주변 상황 등 가능한 범위까지 찾아봤어요. 물론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서울시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어요. 그렇게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포털사이트와 지도에서 한 번 더 검색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목욕탕의 경우 개업한 지 30년이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지도 로드뷰를 보면서 사전



⑤

박현성 *목욕탕은 공간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렌즈에 습기가 차서 수시로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말려가며 촬영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만큼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실례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죠. 어려움이 곳곳에 있었지만 그들이 편안하게 보내고 있는 시간을 침범하지 않되 현장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시간을 온전히 담아내려 애썼어요.*

이재영 *6699프레스에서 인터뷰나 기록, 대화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진행하면서 실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할 때 '나'라는 존재감을 내려놓지 않고 상대를 대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늘 어려운 일인 듯해요.*

⑥

겨울 내내 눈이 내리지 않다가 처음으로 펑펑 오던 날,
카메라와 필름을 챙겨 공원으로 달려나갔다. 마지막 필름,
마지막 컷에 촬영된 성산근린공원. ⓒ〈서울의 공원〉

⑦

사진작가 박현성의 기록 도구인 필름카메라

⑧

왼쪽부터 사진작가 박현성 씨와 6699프레스의 이재영 대표

⑨

금수탕 폐업 안내문. 37년간 운영되다 출간 직후 폐업했다.
탕에 물과 습기가 빠진 목욕탕을 마주했을 때의 여러 감정을
잊을 수 없다. ⓒ〈서울의 목욕탕〉

⑦

⑧

⑨

시간을 붙드는 도구들

이재영과 박현성,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하는 기록자이다. 평소에도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는 방법이 남다를 것 같았다.

박현성 *기록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카메라가 아닐까요?(하하) 저는 사진 작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요즘엔 촬영을 먼저 진행하고 난 뒤 모인 사진들을 편집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주제를 선택하고 난 뒤 마인드맵을 그려 정교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자유롭게 찍은 사진들을 모아 엮었을 때 나타나는 우연성, 그것이 주는 새로움이 있거든요.*

이재영 *저는 무엇인가 생각날 때마다 스마트폰 메모 앱에 정렬하지 않고 써 놔요. 키워드 중심으로요. 목욕탕도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써 놓은 단어였지요. 〈서울의 공원〉은 뮤지션 김목인의 목소리를 담았는데, 그의 노랫말 중 공원에 대한 가사가 좋아서 메모해 두었던 것이 책과 연결되었어요. 뿌듯한 일이었지요. 그렇다고 저에게 메모하는 습관이 '메모의 힘'과 같은 웅장한 장치 또는 가치로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하하)*

기록, 아름다웠던 존재들을 기억하는 장치

사진과 텍스트, 기록과 기억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들. 그것으로 멋진 책을, 아름다운 작품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실제로 〈서울의 목욕탕〉은 '2018년 올해의 북디자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디자이너와 박 작가에게 기록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일까.

박현성 *사람은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재를 버틸 수 있는 소중한 기억 몇 가지만 머릿속에 남기고 그것을 생각하며 버티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지 소수의 기억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순간들을 기록하고 저장한다면, 감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주할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해결과 방법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영 *사라지지 않은 공원, 오래된 목욕탕을 기록한 이 책들이 당장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세월이 지나고 다음 세대가 본 공원과 목욕탕이 지금의 모습이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어요. 삶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서울의 목욕탕〉과 〈서울의 공원〉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누군가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존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아찔하기도 해요. 이런 기록들이 빠르게 변모하는 서울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존재들을 기억하는 장치였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빛바랜 시간과 흐린 기억을 복원합니다

정미의병 최초 사진. 〈데일리메일〉의 종군기자였던 프레드릭 아서 맥켄지의 저서인 〈대한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이다.

1950년 9월15일 UN군이 해안가 방파제를 넘어 상륙하는 모습. 제일 앞서 가는 이가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1925년 8월 23일~1950년 9월 15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해병대 중위이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부대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감싸 전사하였고, 사후에 무공을 인정받아 명예훈장을 추서받았다. 로페즈는 한국에서 해병1사단(지원 부대) 5연대 1대대 A중대 소대장으로 복무하였으며,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 연안에 상륙한 후 그가 부대원을 이끌며 방벽을 넘는 모습.

유튜버 복원 장인
‘복원왕’

1·4후퇴 당시 피란민의 모습

‘당신의 추억은 무슨 색입니까.’
흑백인가 컬러인가. 회색인 것도 같다. 그러다 ‘복원왕’의 답을 듣고 알았다. ‘아,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은 흑백 아닌 컬러겠구나.’ 추억은 기억과 사진으로 남는다. 기억은 추상이고 사진은 구상이다. 사진은 흑백 필름을 통과하면 흑백으로, 컬러 필름을 통과하면 컬러로 남는다. 사진 속 기억을 깨끗하게 복원해 세상에 전하는 이들이 있다. 유튜버 ‘복원왕’. 그들은 흑백 사진은 컬러로, 빛바랜 컬러 사진은 선명하게 되살린다. ‘추억을 복원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라는 모토로 추억을 컬러로, 원형으로 복원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두 재주꾼의 ‘쓰리잡’

경기 의정부의 한 작은 건물 1층이 이들의 공장이자 작업실이다. 입구를 찾지 못해 전화했더니 “사진관으로 오세요” 한다. 출입문을 열자 두 사람이 반긴다. 그들이 ‘복원왕’ 김성진·장재득 대표이다. ‘왕’이라기에 1인인 줄 알았는데 40대 후반의 ‘아재들’이다.
스무 평 남짓한 공간을 스튜디오 겸 사무실로 쓰고 있다. 스튜디오는 다소 어수선(?)했다. 정면 스크린을 중심으로 왼쪽엔 기름공장 출입문이, 오른쪽 선반엔 카메라와 물품들이, 가운데에 책상과 컴퓨터들이 놓였다. 복잡해 보이지만 두 사람 업무에는 나름 최적화된 공간인 것 같다.
사실 이들의 본업은 ‘기름장사’다. ‘깨사랑’이라는 브랜드로, 국산 냉압착 생들기름, 저온압착 생들기름과 참기름 등을 생산·판매한다. 7년 전, 고열로 볶은 기름은 산패 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국산 깨로 냉압착이나 저온압착 방식으로 건강에 좋은 기름 생산에 뛰어들었다. 한때 몸이 아팠던 장 대표의 경험과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그럼 ‘버블 사진 스튜디오’는 또 뭔가. 김 대표가 동네에 사진관이 없어 불편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거품(버블)’을 뺀 저렴한 가격, 성인 1만원, 학생 8천원에 여권사진, 증명사진 등을 만들어준다.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고급 인화지에 보정은 무한 제공. 두 사람 모두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자 중학교 동창인데 김 대표가 1년 선배이다.
“형(김성진)과 전에 컴퓨터 관련 일을 15년 정도 했어요. 같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각자 다른 일을 했는데, 몇 년 전 다시 만나 ‘깨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홍보용 제품 사진을 찍다가 동네 사진관이 없으니 스튜디오도 같이 하자 해서 한 거지요. 형이 예전에 사진관을 했거든요. 아침에 전날 주문받은 만큼 기름을 짜고, 가끔 손님 오시면 사진 찍고, 오후에는 주로 유튜브 영상작업을 합니다.”
말하자면 ‘쓰리잡’인 셈이다. 기름장사와 버블 사진 스튜디오는 국산 사랑, 동네 사랑의 산물이다. 유튜버는 여기에 기록 혹은 추억 사랑이 더해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풍속사이자 기록의 재구성

두 사람은 1900년대 구한말, 일제 강점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진을 복원하고 있다. 아무도 하지 않는 혹은 알지만 귀찮아서,

평양기생학교 주대정치 부장 교사 전경 校舍全景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완전 상노가다'인 일을 자청해서 하고 있다. 김 대표의 말이다.

"제가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 옛날 이발소 면도칼도 동판을 자르고 깎고 다듬어 만든 건데, 꽤 칭찬을 받다보니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찍어 유튜브에 올려볼까 했어요. 근데 공정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사진 보정하는 걸 보고 있던 재득이가 '어, 이거 재미있겠는데' 해서 '복원왕'이 탄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1백여 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 했다. 2021년 10월 현재 구독자 4만5천여 명, 조회수 9백만 회에 이른다. 폭발적이라 하긴 어렵지만 영상을 통해 흐릿하던 추억을 선명하게 만난 이들의 반응은 꽤 '진한' 편이다.

사진 기록을 복원해 만든 영상은 일종의 풍속사이자 기록의 재구성이다. 흑백사진 속 거리, 건물과 먼 산, 노점에 진열된 과일들,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에 색을 입혔다. 망가지고 바랜 컬러 사진은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되살린다. 일률적으로 색을 입히거나 보정하지 않고 최대한 시대상에 맞는 색을 찾기 위해 수천 장의 자료 사진을 뒤진다. 지난한 고증작업이 끝나면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수백 번의 덧칠 과정을 거친다. 한편을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15시간. 테마를 찾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고된 작업을 이들은 아주 유쾌하고 신나게 하고 있다.

"우리 작업은 엄밀하게 고증하는 공인된 기록작업과는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1900년대나 1980년대 다 똑같은 흑백의 과거일 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컬러 세상만 살아봤으니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 시간의 거리를 좁혀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매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흑백에 색을 입히면 달라져요. '어랏, 1904년 조선시대에도 한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다녔네' 하는 거죠. '힙하다'는 댓글을 다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컬러로 복원된 대한제국 의병들

여기 한 장의 흑백사진이 있다. 구한말 일제의 침탈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의병들의 모습을 한 외국인이 카메라에 담았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으로 더욱 유명해진 사진이다. 사진 속에는 모두 12명의 의병이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다. 엉성한 헝겊 모자를 쓰고 허리에 탄띠를 두른 채 '버던 소총'을 겨누고 있다. 대한제국 정규군 복장의 군인과 앳된 소년의 모습이 이채롭다. 컬러로 복원한 사진은 느낌이 전혀 다르다. 소년의 상의는 검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다. 의병들의 모자도 카키색이다. 배경인 산도 초록빛이 섞여 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자.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 모습이다. 깊게 파인 언덕 아래 지프차가 보이고 차 지붕 위에 미군이 서 있다. 이불 보따리와 가재도구를 이고 진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과 짐을 잔뜩 실은 수레가 즐비하다.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고 뿌연 산 아래 흰 눈이 드문드문 쌓여 있다. 컬러로 복원한 사진은 흑백이 전하지 못한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미군은 두툼한 잿빛 점퍼를 입었고, 피란민은 대체로 검거나 회색 옷을 입었다. 간혹 보라색이나 푸른색도 눈에 띈다. 카키색 '군밤모자'와 황색 쓰개수건도 보인다. 색감이 살아나자 당시 상황이 좀 더 생생하게 전해진다. 얼굴, 옷, 모자, 이불, 수레와 차, 산천…. 일일이 이 모든 것의 색을 찾아 입힌 결과이다. 마치 컬러필름으로 촬영한 것처럼. 김 대표가 말하는 "복원은 색을 칠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실감난다.

펄펄 살아있는 과거를 다시 만나는 방법

이번엔 '1904년 조선시대 서울' 편. 서울 광화문 전경, 남대문과 주변 모습, 프랑스대사관 건물이 보이는 전경, 우시장의 소들과 흰옷 입은 사람들, 항아리 시장, 천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추운 겨울 관리의 모습, 갓 쓰고 안경 쓴 노인들, 우물에서 물지게에 물을 담는 물장수들, 수레를 끄는 황소와 짐꾼, 짚신 가게…. 마치 오늘처럼 생생하게 다가온다.

'1971년 서울' 편에는 교복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 택시를 타는 한복 차림의 여인, 쌀자루를 트럭에 싣는 사람들, 화재 감시탑, 우유배달 자전거, 용산 미군기지 앞 도로, 서울역에서 용산으로 향하는 차량들, 서울경복궁 경회루, 조선호텔에서 바라본 환구단 황궁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이 보인다.

'1960년대 부산' 편은 또 신년 '지신밟기' 하는 사람들, 봉래동 골목길과 아이들, 광복동 만우양복점, 거리의 약장수, 외국인에게 말 거는 경찰과 몰려든 시민들, 용두동 에스컬레이터 앞 신신예식장, 아이 업은 여인과 뽑기 장수, 남포동 딸기 노점상 단발머리 소녀들, 남포동 자갈치 시장 앞 청둥오리알 노점, 부산항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배를 탄 부두노동자, 해운대 극동호텔 앞 풍경 등을 되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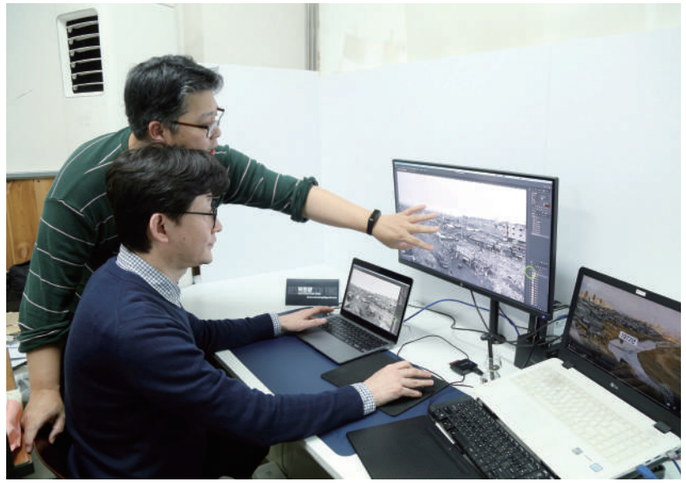
보람은 역사 기록한다는 사명감과 구독자의 감사 댓글

영상들을 보다 보면 '복원'이 매우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치해 두었다면 한낱 '시간의 퇴적층'에 지나지 않았을 사진이 펄펄 살아서 다가온다. '아, 저 때는 저렇게 살았구나.' 부모의 부모가, 부모가, 그 부모의 자식들이 통과했던 삶의 궤적을 확인하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는다.

장사동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서 학도병 772명으로 구성된 제1독립유격대대가 LST 문산을 타고 장사리 해안에 상륙한 작전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작전명 174호, 174 고지라고도 한다.

1975년 6월 26일 신답역 부근에서 중랑천 제방을 잇는 도로 공사현장을 담은 사진이다.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김성진, 장재득 대표



이들은 자타공인 재능과 열정을 겸비한 재주꾼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수리, 사진 촬영과 인화,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여러 소프트웨어도 능숙하게 다룬다. 더구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기질까지 갖췄다. 음주가무도 그다지 즐기지 않으니 사진 복원작업은 이들의 적성에 딱 맞아떨어지는 '부캐' 업무이다. 월·수·금 주 3일은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11시에, 화·목은 오후 7시쯤 퇴근한다.

복원에 '왕' 자를 붙인 것은 이 분야 최고가 되자는 목표를 담았단다. 구독자 5만을 넘보지만 수익은 그리 크지 않다. 애초 돈을 번다든지 명성을 얻는다든지 하는 욕심이 없었다. 그냥 재미있는 취미로 족하단다. 성취라면 영상작업을 할수록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고, 구독자의 감사 댓글에서 느끼는 보람이다. 절절한 가족의 사연을 담아 복원을 요청했던 이들이 완성된 사진을 받고 전하는 감사 인사는 특히 부듯하다.

구세대와 신세대 기억과 역사 공유하길

김성진, 장재득 두 콤비는 각자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장 대표가 주제를 기획하고 사진 소스를 찾는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기록원, 국가기록원 등의 오픈 소스를 활용한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서비스도 매우 유용하다. 김 대표는 이렇게 찾은 원본 기록을 바탕으로 포토샵 작업을 한다. 작업 도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서로 요청하는데 호흡이 척척이다. 이들은 영상을 통해 구세대와 신세대가 기억과 역사를 공유하길 바란다.

가야금을 타고 있는 평양기생

"구한말이나 1950년대 사람들이 무슨 색의 옷을 입었는지 알려면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 어떤 흑백사진에서 극장 간판이 나왔어요. 상영작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주인공이 입은 드레스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해외 사이트를 뒤져서 알아냈죠. 그렇게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복원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주목을 받은 복원작업 중에는 조선시대 기생의 모습도 있다. 조선시대 기생은 사회적으로는 천민 신분이었지만 시와 글에 능한 교양인, 예술인으로 대접받는 특이한 존재였다. 매춘 행위를 하는 창기는 '삼등기생' 취급을 당했다. 평양에 유명한 기생학교가 있었고, 이곳에서 악기와 춤, 예절과 서예를 익혔다.

하얀 한복을 입은 기생이 고급 전통가구로 둘러싸인 방에서 가야금을 타고 있다. 반듯한 가르마를 타고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 컬러로 복원하자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는 놀랍게도 빛과 색이 살아난다. 곱게 화장한 기생은 꽃무늬 수놓은 옥빛 보료에 앉아 있다. 단아한 자태가 돋보인다. 적색과 황색 가구는 화려한 황동장식으로 꾸며진 작품에 가깝다. '복원왕'은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조명하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도 한다.

과거의 재창조… 구한말부터 100년 역사 컬러로 복원하고파

가끔 논란을 빚는 경우도 있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 복원작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열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을 복원했는데, 뜻밖에 '원본이 아니다' '조작이다'는 등의 공격을 받았다. 살아 있는 듯 생생한 복원 후 유관순 열사 모습이 너무 생소했기에 빚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내친김에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열사까지 잇달아 복원하는 것으로 논란에 답했다. 영상 설명의 딜레마도 어려움 중 하나다. 이들의 원칙은 원본 기록이 전하는 설명글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러다보니 원기록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영상 안내글을 통해 설명을 덧붙이지만 역부족, 비난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수밖에 없단다.

낡은 사진 속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다양한 풍경과 모습이 담겨 있다. 골목에서 노상방뇨 하는 술꾼(확대하면 보인다), 학생에게 '삥' 뜯는 것 같은 깡패(확인하긴 어렵지만), 우물에서 물 긷는 물장수들, '구루마'를 끄는 남자, 과일 파는 상인, 등교하는 학생, 카메라를 피하는 수줍은 여학생, 만원버스를 몸으로 버티는 차장…. 시간여행이 따로 없다.

"1890년대부터 1989년까지 100년의 역사를 컬러로 복원하는 것이 목표예요. 복원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전기를 처음 들여온 나라는 프랑스예요. 그런데도 일본은 자기들이 다했다고 우깁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는 일본인도 많고 댓글도 열심히 답니다.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는 일일이 댓글로 반박합니다. '국뽕'이 돼 가는 거죠. 하하하."

복원왕은 '과거의 재창조'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고 있다. 아스라한 시간의 거리를 메우며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되짚게 만든다. 독자들이 복원왕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은 과거와 역사를 다시 만나게 해주기 때문일 게다. 덕분에 희로애락을 겪으며 최선을 다해 살았을 과거의 우리를 만난다. 지금 우리처럼.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현재이자 미래이다.

한국 지명리 동쪽 7사단 홀딩 포인트에서 몇 분간 소중한 휴식을 취하는 노부인의 모습

한 기록연구사가 도시의 기억을 남기고 공유하는 법

서울시 최초 자치구 디지털아카이브 '동대문구 기억여행' 구축한 **최윤하 기록연구사**

동대문 기억여행 ①

① 디지털아카이브 '동대문구 기억여행'
② 최윤하 기록연구사

청량리역에서 서울시립대로 이어지는 왕산로를 중심으로 14개 행정동이 분포되어 있는 서울시 동대문구. 2020년 말 기준 34만 여명이 살고 있는 이곳은 동대문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동대문'이 없다. 동대문구가 동대문 밖에 자리한 데서 유래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동대문 없는 동대문구는 그러나 종합대학 3개와 카이스트가 있고, 철도 개통 이전 근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청춘의 추억 한 자락을 안겨준 청량리 전차역이 있던 곳이다. 여기에 한약재 유통시장인 서울약령시와 엄청난 규모의 신선 청과 유통매장인 청량리 청과물시장은 변함없이 고객들이 찾는 명소다.

채용서류에 밝힌 꿈이 민간기록 수집·전시

이처럼 역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동대문구의 매력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최윤하 기록연구사는 그 방법을 '기록'에서 찾았다. 오랜 역사에 지역 문화가 탄탄히 뿌리내린 곳이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산화시킨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개발 와중에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에 걸맞은 일, 최 연구사에게는 그것이 '도시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2012년 동대문구 기록연구사가 됐는데, 당시 채용서류에 민간기록을 수집해 전시하는 게 꿈이라고 썼어요. 물론 공공기관 기록연구사의 업무는 공공기록물 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져요. 1~2년 일하면서 기본 업무를 익힌 후부터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해 전시하는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력서에 쓰인 한 줄의 꿈은 최 연구사가 기록을 공부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연구소에서 기록을 관리하던 그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알아보다 '기록'에 대한 관심과 재미에 빠졌다. 얼마 후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기록 공부를 했다. 기록교육원을 마치고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프로젝트 등 연구원 선배, 동료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민간기록물 수집과 전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기록물 수집합니다~" 구청 직원 대상 첫 이벤트

입사 2년 후인 2014년, 최 연구사는 혼자서 하는 작은 이벤트를 개최한다.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 수집 이벤트였다. 직원게시판에 동대문구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읍소했고 상장 하나 없는 이벤트에 몇몇이 응답했다.

"처음부터 민간기록물을 수집해 전시하기에는 예산이나 인원 등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민하다가 직원을 대상으로 구청과 관련된 행정기록이나 옛날 신분증 등 동대문구의 기록물을 모으는 이벤트를 열었어요. 작은 사내 이벤트였기에 직원 게시판 등에 띄우고 입소문을 냈어요. 큰 관심을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기록들이 모였어요."

보상 없는 작은 이벤트, 기증자에게 감사 인사와 어쩌다 간식을 챙겨드리는 정도였지만 1970년대 입사 초부터 모은 월급명세서나 수십 년 된 임명장, 종이로 된 오래된 공무원증 등이 모였다. 이 기록물을 사진으로 담아 구청을 방문하는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키오스크에 온라인으로 전시했다.

"1층 키오스크에 디지털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제 자리에서 키오스크가 보이거든요. 구청을 오가는 분들이 보실 때마다 은근 뿌듯했어요. 그때 자신감을 많이 얻었죠."

누구의 지시나 예산 없이 꿈을 현실로 바꾸는 열정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은 일, 그럼에도 최 연구사는 기록을 모았고 전시를 현실로 만들었다.

③ 동대문구청에서 찍은 2018년 청량리 청과물시장의 내부 전경
④ 2003년 서울약령시 모습
⑤ '동대문구 기억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청량리역에 대한 기억

동대문구만의 디지털아카이브 안 될까?

첫 전시에서 맛본 즐거움과 자신감으로 최 기록연구사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한다. 동대문구만의 온라인 기록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였다. 물론 장애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여느 자치구처럼 한 명뿐인 기록연구사라 오롯이 홀로 추진해야 하는 점,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큰 난제였다. 고민을 거듭한 최 연구사는 함께 기록을 공부한 이들과 의논했고, 적은 예산으로 기록을 모으고 공유하기에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가 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지난했던 '동대문 기억여행'의 출발이다.

"동대문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한 민간기록을 볼 수 있는 상설 기록공간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고 2015년부터 매년 시도했어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안 되다가 2019년 처음 예산에 반영됐어요. 그해에 대대적으로 동대문구 민간기록 수집 공모전을 개최해 기록을 모았고 2020년 '동대문구 기억여행'이라는 디지털아카이브를 열었습니다." 2012년부터 꾸어온 꿈을 2020년 실현하기까지 성실한 추진력이 돋보이는데, 최 연구사는 2019년에라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 '다행'이며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역시 긍정의 힘은 꾸준함을 낳고 꾸준함은 결국 무언가를 달성시키고야 만다.

'동대문구 기억여행'은 동대문 구민들의 일상과 함께했던 주요 장소와 공간을 기록으로 재조명해 보는 디지털아카이브이다. 동대문구에서 상징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청량리', '한의약', '일상', '조선왕실의 삶', '선조들의 농경문화', '동대문구의 근대를 걷다' 등 6개의 주제를 정한 후 주제별 서사에 맞춰 장소를 찾아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담은 글과 사진 등 수집한 기록을 배치했다. 청량리의 경우 청량리역을 비롯해 깡통시장, 오스카극장 등 동대문구의 상징적 장소들을 사진과 음성, 필드레코딩이 곁들여진 콘텐츠로 서비스하는 식이다. 기록으로 재탄생한 곳은 현재까지 67곳이다. 여기에 동대문구 보존서고와 국가기록원을 뒤져 찾아낸 기록들을 보태고 모자란 기록은 별도로 수집했다. 약간 과장해 그야말로 최 연구사의 '피땀눈물'이다.

청량리역, 청과물시장 흥정소리, 음악다방 성냥갑…
동대문구의 과거와 현재를 수집하다

"수집한 기록만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소리나 구술 등은 별도로 채집하기도 했고 보존서고에서 기록을 찾기도 했어요. 기록연구사의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매년 기록물 평가를 통한 폐기작업인데요. 폐기할 때마다 기록여행에 넣을 만한 기록이 있는지 살폈어요. 인허가 서류나 신청서류가 대부분인 보존서고 문서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진 자료나 다른 기록들을 찾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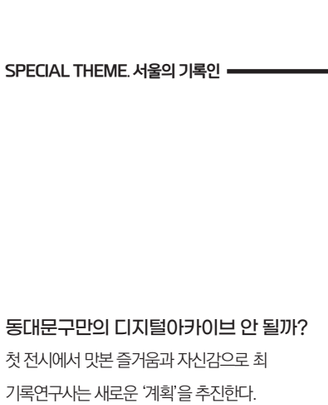
청량리 청과물시장의 흥겨운 흥정소리처럼 현장을 잘 보여주는 소리기록은 별도로 수집했다. 어릴 적 드나들던 음악다방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성냥갑을 모아온 기증자는 따로 만나 공간 속 추억을 불러오는 매개체로써 성냥갑을 둘러싼 이야기를 구술로 남겼다.

"동대문구 기억여행은 동대문구의 공간을 매개로 구민들의 기억을 소환하는 기록전시 프로젝트예요. 전시는 시공간 축을 따라 구민들의 일상과 함께했던 상징적 장소나 사건, 인물을 재현하는데, 각 장소나 사건, 인물과 관련된 기록들이 만나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그 재현이 우리네 일반 시민의 생활을 보여주는 난장이의 역사라는 점이 중요하죠."

2020년 6월 오픈한 '동대문구 기록여행'은 1년여가 지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지역을 가르치는 마을학교 교재에 게재되기도 했고, 구내 여러 학교에서 토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또한 최 연구사가 초 · 중 · 고 교과서를 분석해 동대문구 기억여행 속 여러 기록과 이야기를 엮어낸 덕이다.

⑧

⑦


⑥

⑥
2015년 회기동 벽화골목 모습
⑦
블루스 아티스트 로버트 존슨의 곡
'Cross Road Blues'에 대한 벽화
⑧
공공기록과 함께 민간기록을 수집해 전시한
최윤하 기록연구사의 노력 덕분에 디지털아카이브
'동대문구 기억여행'이 탄생할 수 있었다.

⑨

⑩

구민들과 멋진 기억여행,
오래 나눌 수 있기를!

기획부터 기록수집, 사이트 구축과 서비스까지 온전히 최 연구사가 쌓아올려 탄생한 디지털아카이브 '동대문구 기억여행', 기록연구사가 해낸 작지만 단단한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도전을 부추기는 성공담은 역설적으로 기록연구사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지 15년, 아직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단 한 명의 기록연구사가 문서고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한 명의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마저 전담부서 없이 대부분 민원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록연구사가 정보공개청구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었고 민원업무를 대직업무로 맡기도 했지요."

이런 현실에서 모든 동주민센터 기록물 점검부터 이관, 정리, 평가와 폐기를 아우르는 기록관 운영과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에 더해 기록물을 수집하고 전시까지 감당하는 것은 벅찰 수밖에 없다. 최 연구사는 그래서 '더 큰'이 아닌 '더 오래'를 말한다.

"2019년부터 따지면 동대문구 기억여행 프로젝트가 지금 3년차인데, 사실 기록연구사 한 명이 진행하는 일에 매년 사업비를 따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앞으로 멈춤 없이 꾸준하게 기록과 기억을 모으고 이를 잘 갈무리해 시민들과 오래도록 나누고 싶은 바람입니다."

기록관리전문요원 한 사람의 열정과 발품으로 찾은 동대문구의 매력적인 추억과 기억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동대문구 기억여행. 이 멋진 여행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큼이나 자치구 안팎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하다.

⑨
이문동 재개발구역의 길고양이
⑩
선농단은 조선왕조가 몰락하며 옛 모습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며 원형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문화재청
⑪
옛 청량리시장의 모습. ©동대문구청
⑫
서울시내 영화극장 현황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1960년대 초반, 한국영화의 르네상스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수의 극장을 보여주는 서울시내 극장 현황표와 안내도이다. 범례에 보이는 봉절관은 개봉관을 뜻하며 개봉관에서 상영한 영화를 받아서 상영하는 재개봉관을 2번관, 그리고 마지막 변두리 극장을 3번관이라 불렀다. 1962년 4월 11일. ©서울역사박물관

⑪

⑫

서촌 옥상에 서면 지금의 우리가, 서울이, 역사가 보여요

서촌 풍경 담는
김미경 작가

인왕산 동쪽과 경복궁 서쪽 마을 일대를 아우르는 서촌은 서울에서 드물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이다. 인왕산 자락 서촌 동네마다 긴 세월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 낸 풍경이 매력적으로 펼쳐진다. 김미경 작가는 이 서촌을 더 느린 눈길로 관찰하고 섬세하게 담아내는 '서촌 옥상화가'이다.

쓰는 기자에서 '무면허' 화가가 되기까지

2014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펜으로 그려낸 '서촌 옥상도'만 70호가 넘어섰다. 서촌의 어떤 면이 그토록 강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김미경 작가의 눈길과 손길을 붙들었을까.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펜으로 그림이 아닌 기사를 쓰던 시절로 가야 한다. 스스로를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무면허 화가'라고 칭하는 김 작가는 언론사 한겨레신문 기자였다. 치열하게 세상을 취재하고 활자로 기록하던 그는 어느 날 옆자리 동료였던 박재동 화백 권유로 사내 그림 동호회를 시작했다. 벌써 30년도 넘은 일이다.

"아주 잘 그리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기자들이 워낙 바쁘니까 많은 시간을 내지는 못했고,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만나 서로 얼굴을 그린 후에 짜장면 먹고 헤어지는 식으로 이어나갔죠."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가 퇴사 후 그간의 경력을 뒤로하고 미국 맨해튼 뉴욕문화원 리셉셔니스트로

①
김미경 화가

②
서촌옥상도. 김미경 작가가 처음 그린 서촌 옥상도이다

③
작품 '좋아서'

④
작품 '옥인동 47번지'

7년여간 일한 그는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을 비롯한 수많은 갤러리와 공연, 창조적인 예술가에 둘러싸여 지낼 수 있었다. 돌아보면 작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면에 그림을 향한 열망과 새로운 시각이 움트는 시간이었다. 그래서일까, 한국에 돌아와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을 맡으며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복귀했지만 좀처럼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한다. 그림에 온전히 시간을 쏟고 싶은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다운재단 옥상에서 마주한 서촌 풍경에 운명처럼 매료되고 말았다.

"졸도할 만큼 좋았어요." 인생을 바꾼 서촌 옥상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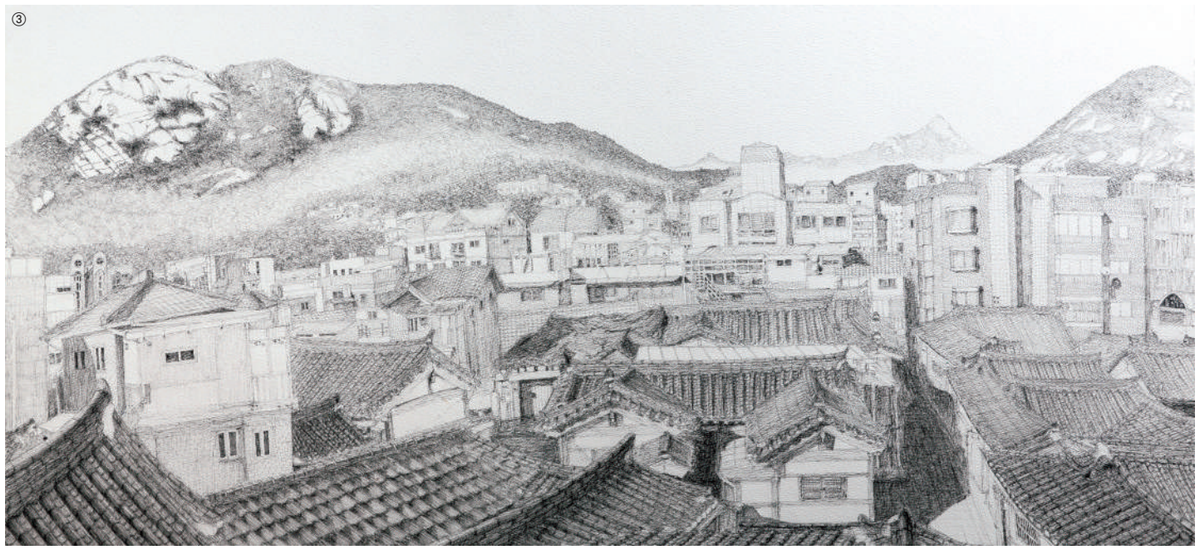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보는데, 졸도할 정도로 좋았어요. 왜 그렇게 좋았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익숙해 있던 맨해튼의 인공적인 자연이나 도시 풍경과 인왕산 아래 펼쳐진 자연스러운 역사의 풍경이 극적으로 대비됐던 것 같아요. 서촌은 고대부터 근대, 현대까지 긴 역사가 한 화면에 모두 담기는 곳이잖아요.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몇 천 년의 역사가 한눈에 담겨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한국에 계속 살았다면 서구 문화가 좋고 우리 것은 촌스럽다는 식의 편견에 머물렀을 텐데, 미국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눈을 갖게 됐어요. 덕분에 서촌 풍경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예뻐 보였던 거죠."

그때부터 작가는 참여연대 그림 강좌를 수강하면서 서촌을 그리는 데 몰두했다. 하지만 직장 생활 중 짬을 내 그리는 그림은 허기를 채우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는 "딱 1년만 원대로 그림을 그리며 살아보자"는 결심으로 2014년, 54살의 나이에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뒀다. 서촌 옥상화가라는 '신캐새로운 캐릭터'가 탄생하는 전환점이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집 옥상부터 이웃집 옥상, 카페 옥상 등 서촌이 잘 내려다보이는 옥상을 찾아다녔다. 인근에 청와대가 있어 경비가 삼엄한 지역이다 보니 지도 그리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아 쫓겨난 적도 있다. 세밀하게 풍경을 담는 화풍 특성상 한 장소를 반복적으로 찾아야 해서 옥상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성실함과 열정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서촌 풍경을 그려 나갔다. 인왕산부터 수성동계곡, 오래된 동네 세탁소와 슈퍼마켓, 300년 넘은 나무, 역사의 흔적을 품은 가옥들, 인왕산에 핀 작은 꽃…. 여러 모습의 서촌이 작가의 손끝을 거쳐 그림 속에 하나하나 새겨졌다.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남기려는 마음, 기록

뭔가를 기록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그린 적은 없지만 사실 김미경 작가는 어릴 때부터 기록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자택 작업실 한 쪽에는 그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부터 미국에 가기 전 물건을 정리하면서 아끼는 것들을 그림으로 기록해둔



③

④

⑤

⑥

⑦

일기장, 연도별로 중요한 기록을 스크랩해놓은 파일까지 다양한 기록물이 즐비하다. 손때 묻은 스크랩북 하나를 펼치자 월급 명세서부터 딸이 쓴 편지, 기자 시절 작성한 기사까지 시대와 개인의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는 '보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작가는 '잘 버리는 사람'이기에 오히려 잘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버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추려내야 한다.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남은 것들이 모여 의미 있는 기록이 된다. 그가 서촌 풍경을 그리는 것 역시, 어쩌면 지금 가장 설렘을 주는 풍경을 잡아 두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일상의 가치를 새로이 전하는 서촌 옥상도

2015년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전시마다 수십 점의 그림을 판매했다. 전직 언론인으로서 지닌 홍보 능력과 진입장벽을 낮춘 '합리적인' 그림값 덕분이었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 전략이 다는 아니었을 것이다. 세밀하게 기록된 서촌 풍경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상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고스란히 역사의 흔적이다. 복잡한 도심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는 휴식의 풍경이기도 하다. 서촌 그림을 소장함으로써 공간을 더 의미 있게 기억하고 누리려는 구매자들이 많지 않았을까. 실제로 서촌의 식당이나 약국 중에는 김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걸어 놓은 곳이 여럿이다.

전시를 할 때면 토박이 주민이나 서촌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와서 그림 속의 자기 공간을 발견하며 즐거워하기도 한다고.

사진 한 장이면 눈으로 보는 풍경을 영구히 소장할 수 있는 시대에, 100시간 걸려 손 그림으로 완성해내는 서촌 옥상도가 가지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애정 어린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한 획 한 획 정성 들여 담아내고, 같은 풍경이라도 작가의 세계관이라는 필터링을 거쳐 완성한 그림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더 오래, 더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화가가 된 지 햇수로 8년. 매일 보고 그리는 풍경이지만 시간에 따라 서촌 풍경은 다르게 눈에 들어오고 표현된다. 초반에는 인왕산을 멀리

⑤
작품 '인왕산 진달래'
⑥
작품 '사직동 채송화'
⑦
작품 '헌법재판소, 봄의 교향곡'
⑧
작품 '新인왕재색도'
⑨
작품 '그 느티나무'
⑩
인왕산을 그리고 있는 김미경 작가. 초본에는 인왕산을 멀리 그렸다면 최근에는 존재감이 더 커져 먼저 그려넣곤 한다.

⑧

그렸다면 최근에는 존재감이 더 커져 먼저 그려 넣곤 한다. 그렇게 생명력을 가진 서촌을 성실하게 담아내고,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날에는 꽃과 나무도 실컷 그리고, 때로 서촌을 떠나 다른 여행지 풍경도 담아내면서 걸어온 화가의 길. 김미경 작가는 지난 2020년에는 60살을 맞이해 개인전 '바람난 60살'을 열기도 했다. 전시를 계기로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한자리에 모았는데, 자신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료하게 볼 수 있었다. 이는 그가 서촌옥상도를 그리면서 깨달은 지점과도 맞닿아 있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옥상에서 길이 어떻게 나고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공간이 마을을 채우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알려주는 기록의 힘

"제가 방향치예요. 동서남북을 잘 못 찾아요. 그런데 서촌 옥상에 서면 전체 구도가 보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내가 헤맨 지점이 어디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미지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그릴 때와 달라진 생각도 많고, 서촌을 언제까지 그릴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제 유일한 아이덴티티는 '매일 매일 그린다' '열심히 그린다'예요. 가장 두려운 건 더 이상 그리고 싶지 않는 순간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너무 재미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재미있는 걸 그리려고요."

눈 앞에만 시선을 뒀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내는 순간에는 미처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성실한 기록은 하나 둘 모여 궤적을 만들어내고 예상치 못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마음이 이끄는 서촌 풍경을 담아내다 보니 그것이 작가 개인의 역사가 되고, 누군가의 추억이 되고, 서울의 기록이 된 것처럼 말이다.

⑨

⑩

채집하고 기록한 '지금', 다시 작품이 되다

①

②

채집만화가이자 미술가
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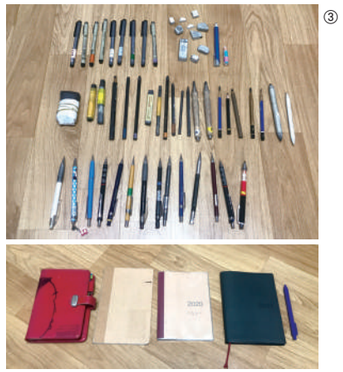
미술과 만화를 하는 사람, 전지 작가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자세히 비추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자세히 비추려면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달려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목격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굳이 수집'해야 한다. 채집이라는 정직한 노동으로 모은 이야기들로 그림 그리고 점토로 빚고 쓰고 새기는 창작활동을 하는 전지 작가를 만났다.

본격 채집운동의 시작 <있을 재 구슬 옥>

여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2015년, 전지는 본격 채집운동의 포문을 알리는 작업물을 내놓았다. 그동안의 빵빵한 작품들을 제치고 엄마 재옥 씨의 이야기를 담은 〈있을 재 구슬 옥〉을 '본격 채집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책을 만드는 공정에서 채집과 창작의 연결고리가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니 실은, 전지의 모든 작업을 통틀어 가장 '뜨신' 기운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느라 펼쳐보는 지금도, 꺼낸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온기 남은 핫팩을 만지는 듯 책장이 따숩다.

"미술과 만화로 성과를 못 내서 스스로가 참 많이

① 전지 작가
② 전지의 가족구술화 엄마편 〈있을 재 구슬 옥〉
③ 전지가 쓰는 기록의 도구들
④ 〈선명한 거리〉 표지
⑤ 〈선명한 거리〉에 담긴 동네 풍경
⑥ 〈선명한 거리〉 1화 굴욕의 애정


③

답답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던 시기였어요. 미술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해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되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온몸을 아주 오래 주물러 줬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그제야 엄마가 숨이 쉬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둘이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곤 엄마와 옛날이야기를 하다 잠들었는데, 다음날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록될 만한 사람이고, 충분한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지원사업 임하듯 '엄마의 기록 기획서'를 쓰며

전지 작가는 엄마 재옥 씨를 '굳이' 카페에서 만나 구술 인터뷰를 하고, 일상을 일기로 쓰게 했다. 묵은 사진첩에서 사진을 떼어내 스캔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연구하고 채집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을 보며 재옥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또 기록했다. 채집과 기록, 이 모든 것이 창작의 과정이자 결과물이었다.

"지원사업에 임하듯 각 잡고 기획서를 써 보며 몇 달간의 과정을 가늠하고 엄마에게도 정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우선 엄마에게 한 달 정도 매일 일기를 써주시라 제안했는데 에너지가 콸콸콸, 완전 흔쾌히 수락하셨죠. 사람들에게 보일 책임을 엄마가 인지하고 쓰는 건 좋은데, 솔직하지 않으면 재미없다고도 말해 두었고요. 같이 가족앨범을 펼쳐놓고 옛날 일을 어제일처럼 꿰고 있는 기억력 좋은 재옥 씨에게 우리 가족의 역사를 들었어요. 저는 추임새를 넣었고요. 울다가 웃다가, 가족이 많이 좋아지게 된 작업이었어요. 사실 저는 가족에 대한 마음에 냉소가 잘 들러붙었거든요. 기대기도 도망가기도 좋은 단어가 냉소인 거 같아요. 근데 되게 뜨겁게 살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그걸 알게 됐어요."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을 정색하고 다시 보고 이해하고 새로 친해지고 다시 익숙하고 당연해지는 것. 결론은 같아도 여러 길을 돌아서 진짜 사랑으로 만드는 일을, 전지는 '기록'으로 해낸 것이 아닐까. 발견-관찰-애정샘솟-기록-창작-애정급증, 아마도 이런 도식이지 않을까 싶은 그 메커니즘을 배우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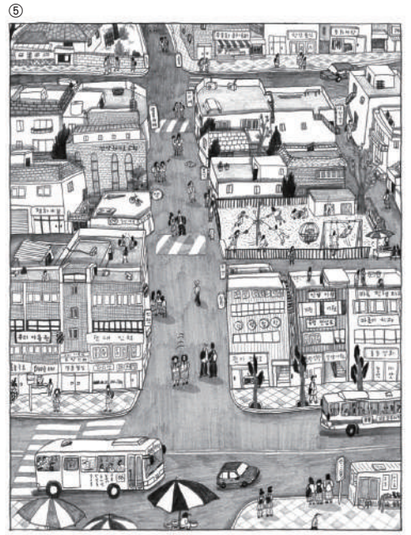
④

⑥

목격부터 온도와 완급 조절을 거쳐 애정까지… 기록의 메커니즘

"꿰뚫어 보셨네요. 저는 직진이고 뜨거운 사람이에요. '속이 시끄럽다' '애면글면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서이더라고요. 기대도 크고 그래서 자주 끓지만 자주 반하기도 하고, 생면부지에게도 귀여운 모습이 보여요. 2010년에 첫 만화 〈단편만화수필집 끙〉을 쓰고 나서 내 얘기를 다른 이가 볼 만하게 정리하는 방식이 좀 가늠이 됐어요. 그 후에, 작업실이 있던 문래동의 안테나 언니, 오빠가 '전지가 본 문래동'을 만화로 그려 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만화책 〈오팔하우스〉로 묶여 나왔는데 그게 어찌 보면 제 기록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3~4년째 문래동에 작업실을 둔 때라 그간 본 것, 겪은 것, 느낀 것이 많아서 정말 쉽게쉽게 그렸고 행복했다는 전지 작가는 그때 만화가 정말 좋은 매체라는 걸 몸소 느꼈고 완전 만족했다.


⑤

⑦

"물론 좋아하는 이들만 제 만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서 애매한 사람,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도 보게 되니 '완급조절' 혹은 '온도조절'을 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기술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걸로 보면 '목격-관찰-애정 샘솟-온도조절-기록-창작-완급조절-선택적 애정'이 맞겠네요."

기록에 이야기가 달라붙어 창작물로 변신하는 눈부신 순간

기록과 창작의 메커니즘이 이러하다면 그 도구들도 궁금했다. 전지의 기록저장소에는 '다시 와 볼 곳' 폴더가 있다. 건물이나 장소들은 사진을 찍어 폴더에 정리해 놓는다. 버스나 전철, 길가에서 본 인상적인 사람이나 상황은 바로 핸드폰 메모장에 쓴다. 얼른 기록하기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다. 띄엄띄엄 썼던 일기를 작년부터는 매일 쓴다고 한다.

"귀찮고 힘들지만 1년을 빼먹지 않고 쓰니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이야기가 휘발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쓰기 귀찮을 땐 녹음이라도 해요. 이야기는 자석처럼 달라붙는 소재가 있더라고요. 나의 아버지 이야기에 '우리 집 앞에 점점 담장을 밀어 내고 있는

⑧

⑨

⑩

가죽나무'가 달라붙을 수도 있고, 안양 이야기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의 뜨거운 햇볕' 이야기가 달라붙기도 해요."

이렇게 일상을 기록으로 '스탠바이'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가 달라붙어' 창작물로 변신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수많은 기록을 뒤지고 뒤져서 만든 책 〈선명한 거리〉를 보면 그 습관이 얼마나 눈부신 보답을 해 오는지 알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일이 세상에 없는 창작이 될 수 있는 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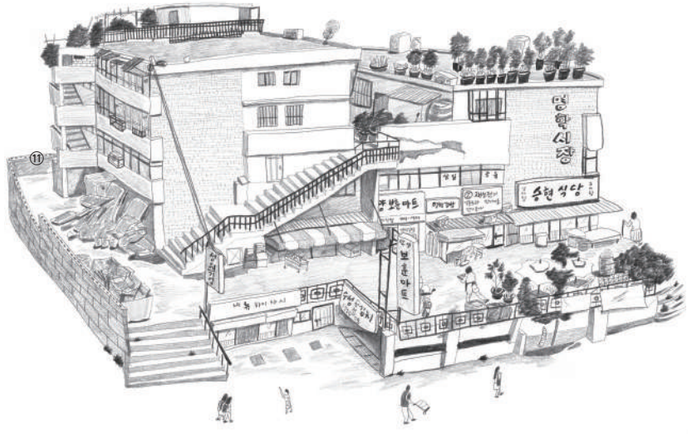
'채집미술가' 전지는 얼마 전 태백에서 느슨하고 특별한 작업을 하고 왔다. 그저 태백 동네 어디건 무엇이건 창작자로서 해볼 만한 '거리'를 찾아 수행하는 작업이었단다. 각 작업에는 두 명의 창작자가 짝을 이루는데, 한 작가는 태백을 작업하고, 다른 작가는 '그 작가가 태백을 작업하는 것'을 작업 대상으로 삼는다. 오래 살았던 동네 안양, 아직 근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인천, 재래시장, 바닷가 마을, 온갖 것을 목격하고 채집과 기록을 해 온 전지가 목격당하고 채집당하고 기록당하는 작업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요즘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워크숍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내놓는 결과물만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또한 창작의 연장이라는 의미에서, 전지는 누군가의 창작을 기록해 주고, 그 기록은 다시 또 전지의 창작물로 만들어진다.

"장애문화예술원 티키타카 워크숍은 장애인 예술가들을 기록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저를 비추는 워크숍이기도 해요. 친구 중에 장애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거든요. 장애인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워크숍에서는 아무도 '무슨 장애가 있다'는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서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요. 이 워크숍 내용을 고스란히 텍스트로 기록하는 건 현장에 있는 문자통역사님이 해 주고 있어요. 저는 참가자들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을 중요한 기록작업으로 삼고 있어요."

기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크고,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이야기를 건져 올리는 전지 작가는 만화와 미술 사이를 오간다. 깊이 훅 들어갈 땐 만화로, 더듬더듬 애매하게라도 말하고 싶을 땐 미술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실에서는 묻혀서 잊힐 것 같은 장면을 그려서 공유하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미술과 만화로 수행하고 싶어 한다. 작가는 그 과정에 기록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제 정체성에서는 기록과 공유가 중요 키워드 같아요. 저만 보는 미술이나 만화는 의미 없더라고요. 제가 건져 올린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에 대한 반응과 공유한 분들에게 있을 변화나 영향이 궁금해요.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ㅐ


⑪

⑫

⑦⑧
전지는 태백이 시멘트 생산지인 점에서 착안하여 '리콜렉션 모르타르 드로잉'을 진행한다. 다른 작가는 전지가 하는 모르타르 드로잉 작업을 기록한다.

⑨
2018 개인전 〈채집운동 모르타르〉, 팩토리2, 서울

⑩
〈있을 재 구슬 옥〉 작업을 마치고 편딩을 준비하는 전지의 작업 공간

⑪
2015 개인전 〈오후 시장〉 명학시장 드로잉, NPO지원센터, 서울

⑫
전시장에서 드로잉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전지

소설가는 다양한 기록인의 수고에 빚진 직업이기도 해요

김숨 작가가 2021년 4월 발표한 위안부 관련 다섯 번째 소설 <듣기 시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할머니의 증언을 채록하는 '나'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실제로 소설은 김숨 작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만난 채록가의 기록인 '증언'에서 출발했다. 문학평론가 김형중의 표현을 빌자면 "지금 문학과 증언과 역사가 어떻게 만나야 하고 만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전대미문의 도정 한가운데서 사투 중인" 김숨 작가를 만난 배경이다.

문학·증언·역사로 직조한 '증언소설'로 강렬한 울림 전하는
김숨 작가

"녹취록을 풀 때 그녀의 침묵도 문자文字에 담아 기록해야 한다. 그녀의 표정, 몸짓, 한숨, 눈빛, 얼굴빛, 시선, 눈동자의 떨림, 망설임, 눈물도…… 그것들 역시 그녀의 발화되지 못한 말이므로."
〈듣기 시간〉 중에서.

줄곧 침묵으로 증언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김숨 작가의 〈듣기 시간〉은 독자로 하여금 증언집엔 기록되지 못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말 너머의 표현을 상상하게 한다. 이로써 위안부 생존자가 살아가는 삶의 또 한 부분이 발견된다. 〈듣기 시간〉으로 다섯 번째 위안부 관련 소설을 낸 김숨 작가는 그 밖에도 역사적으로 수난당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삶을 계속 소설로 담고 있다.

증언집 덕분에 쓰기 시작한 위안부 소설

김숨 작가가 위안부 관련 소설을 쓰기에 본격 돌입한 건 실상 폐기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다. 피해자 상당수가 세상을 떠날 정도로 연로하다는 사실에 대한 다급함으로 출발한 그의 작업은 기록으로 존재하는 구술 증언집 위에서 가능했다. 그렇게 첫 위안부 관련 소설 〈한 명〉이 나왔다.

"2015년 위안부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생각만 하던 위안부 관련 소설이 써졌어요. 할머니들이 몇 분 안 남아 계시는데, 이러다 한 명만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 명〉을 썼거든요. 자료를 찾고, 할머니들 구술 채록이 담긴 증언집을 읽었죠. 그 기록작업을 하신 분들 덕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증언집을 읽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경험을 간접 체험하고 이야기를 쓸 수 있었어요."

〈한 명〉 이후에도 위안부 이야기로 소설을 쓰는 작업을 이어갔다. 김동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장의 연결로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를 직접 만나게 됐고, 2018년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각각 담은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와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두 편의 증언소설을 세상에 내놨다. 위안소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흐르는 편지〉도 출간했다. 〈듣기 시간〉 역시 증언집에 실린 채록자들의 후기를 읽고서 초고를 써놨던 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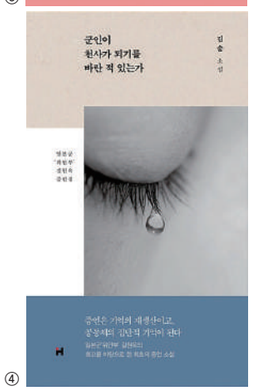
"증언집 속 할머니들 증언 아래엔 채록자들 후기도 실려 있었어요. 구술채록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게 되면서 〈듣기 시간〉 속 '나' 같은 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덕분에 그 이야기를 쓸 수 있었고요. 채록을 기반으로 상상한 할머니들의 침묵을 간접 경험한 후에 초고가 나왔어요. 실제로 할머니들을 만난 뒤 경험하면서 다듬었고요. 증언집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면 계속 쓸 수 있었을까 싶어요."

'다가오는 이야기' 흘려보내지 않기

김숨 작가가 증언과 기록에 기대 소설화한 현실의 인물이 위안부뿐만은 아니다. 민주열사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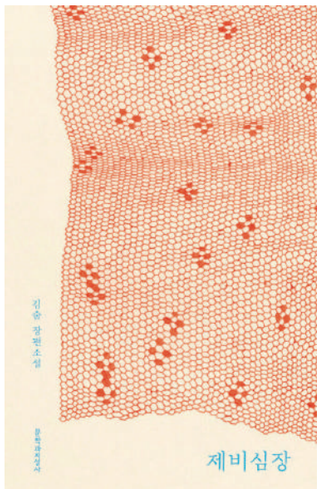
①
김숨 작가 ©백다흠
②
〈듣기 시간〉
③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④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이한열의 운동화 복원 과정을 다룬 〈L의 운동화〉를 시작으로 노동자, 철거민, 강제 이주 고려인, 입양아 등 사회적으로 힘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부지런히 써왔다. 거창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다. 소설가로서 작가는 자기에게 다가온 누군가의 이야기,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써야 했다. 〈L의 운동화〉는 이한열 운동화를 복원 중이던 김겸 미술품보존연구소장의 강의를 들은 직후 돌입한 작업의 결과다. 단편 〈철〉과 장편 〈제비심장〉에서는 조선소 노동자 이야기를 다뤘는데, 김 작가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조선소 노동자가 많은 도시였던 영향이 크다.

"독자일 때 누구나 자기 마음을 건드리는 소설을 찾아 읽잖아요. 소설가로 제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게 다가오는 이야기를 써요. 사명감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하는데 인권이나 역사에 대한 투철한 의식으로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면 부담감에 눌려서 오히려 쓰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김복동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분이야말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였던 개인이 세대나 국경을 뛰어넘어 다른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해 나아가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냥 소설가로서 자신 앞에 존재했던, 삶에서 마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애쓴 결과라는 것이다.

"〈L의 운동화〉 이후 계속 실존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소설화하는 일을 지속한 것 역시 저와 인연이 닿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대학 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발견한 이야기로 쓰고 있는 작품도 있고요. 조선소 노동자들 이야기는 가장 오랜 시간에 걸친 작업이었는데, 20대 이후로 계속 쓰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단편을 쓰고 장편으로 또 썼어요. 역시 제 삶과 가까운 이야기였고요. 조선소가 있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⑤

⑤
조선소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제비심장〉
⑥
〈한 명〉
⑦
〈L의 운동화〉

사실과 허구 경계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다가오는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쓰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 존재하는 사건, 그 사건에 피해 입은 이의 이야기를 소설로 발전시키는 과정은 픽션과 논픽션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칠 수 없다. 그 일을 여러 번 완성해내는 동안 작가는 쓰는 과정에서 더욱 철저함을 기하고 있다.

"〈L의 운동화〉를 펴낸 뒤 소설 쓰기의 어려움을 더욱 체감했어요. 현실의 피해자가 겪는 상황을 소설로 가져올 땐 완전 허구의 이야기를 쓰듯이 지나치게 과장된 서사를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소설로 인해 오해받거나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요. 무식해서 멋모르고 달려들었어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무죠. 단어 선택 하나라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더 철저해야 해요. 제가 쓰는 글이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소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현실을 담아내면서도 소설가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짓는 일, 사실과 허구 양쪽 어디에도 쏠리지 않고 경계를 지키면서 써야 하기에 쉽지 않은 거죠. 덕분에 예전과 달리 퇴고도 즐기게 됐어요."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의 한 양식이다. 이 허구의 형식은 다른 어떤 기록물보다 폭넓게, 시공간을 초월하며,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기록해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소설가가 책임을 다해 쓴 이야기, 균형을 지키며 현실을 길어 올린 소설 한 편을 읽고 나면 그 이야기에 반영된 사회와 사람들의 가치관이 통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유다. 그래서 소설이 쓰이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한 다른 기록물들에 빚지게 마련이다.

"다양한 기록물 중에서 아무래도 소설이 대중적으로 잘 흡수되는 형식인 거 같아요. 다양한 시대와 사회상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쟁 직후 미군정 시대를 상상하며 유추할 수 있고, 경성 시절의 서울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은 각지에서 기록을 해 놓은 연구자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저기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 기록들, 소재들을 모아서 소설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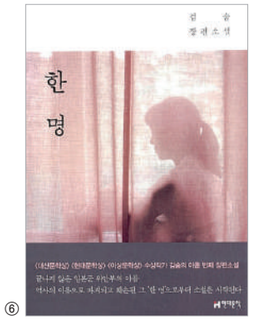
타인의 삶과 연결되어야 시작되는 작가의 쓰기

소설가로서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묻는 질문에 김숨 작가가 말했다.

"그냥 가 보는 거죠."

소설로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가 없음을 재차 강조한 작가는 앞으로도 '다가오는 이야기'를 쓸 계획이다. 개인적 경험이나 상상만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들, 타인의 삶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쓰이는 이야기, 누군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이 보이는 이야기를 계속 지을 것이다.

"앞으로도 의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쓰고 싶은 소설은 이상하게 개인의 경험을 넣거나 상상만으로 쓰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시작되고 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쓸 수 있는 소설이에요. 특별히 영역이라는 걸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작업물이 쌓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길이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그냥 가보는 거예요. 소설을 쓰면서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고, 그분들에 대한 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문득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에 대한 평가나 선택은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⑥

⑦

시간을 기록하는 청년들

서울만큼 빠르게 시간을 사는 도시가 있을까. 사라지는 것도 빠르고 다가오는 것도 빨라 제대로 애도하고 환영할 겨를마저 챙기고 누리기 어려운 도시. 하여 밀려가고 달려드는 시공간의 켜를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한 도시. 이런 서울을 기록활동으로 깊이 호흡하고 은근하게 되새김하는 청년들이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를 기반으로 기록활동을 하고 있는 '자양5동'과 '이문모아' 청년들이다. 2018년 시작 시점이 같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활동해온 점 등 묘하게 닮은 이 청년들을 만나 기록활동을 통해 얻는 자극과 포만감에 대해 들었다.

❶ 사라지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 기록이 있다

광진구 자양동 지역문화기록프로젝트 구상하는 '자양5동'

①

②

조선시대 군대를 사열하거나 출병할 때 둑기纛旗. 소꼬리나 꿩의 꽁지로 장식한 큰 기를 세우고 둑제纛祭를 지낸 곳이라 둑섬, 둑도로 불리던 데서 유래한 '뚝섬'. 이름에서 묻어나듯 한강을 면하고 있는 뚝섬 일대를 아우르는 광진구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항구로 성했다가 유원지, 공업지대 등으로 변모했고 이후 주택단지와 대학, 아파트 단지가 늘었고 최근에는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 광진구 자양동의 토박이인 대학원생 홍지연 씨는 자연스레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고 생생한 목격자였다.

자양동에는 자양5동이 없다

"오래 살았으니까 더 눈에 띄었던 거 같아요. 특히 자양동은 한강과 가까워서인지 재개발이 끊임없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공간도 바뀌었어요.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단독주택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도시공간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어느 날 유년시절부터 추억이 녹아 있는, 동시에 계속 바뀌는 이 복합다양한 자양동이라는 공간과 주민들을 기록해보고 싶어졌어요."

기억하고,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기 위한 아카이브프로젝트 여정에 유년 시절부터 추억을 같이 쌓아온 홍석민, 김태린 씨가 동행했다. 2018년 11월 인스타그램에 계정(jayang.5dong)을 개설하면서 시작된 '자양5동'의 탄생이었다. 행정구역상 4동까지 있으니 가상의 동네인 셈인데, '우리만의 새로운 자양동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붙인 작명이 신선하다.

자양5동 청년들은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나 엄근진엄격근엄진지의 준말 한 활동을 추구하지 않았다. 사회학, 디자인, 도자기공예 등 세 사람의 전공이 다르고 관심사도 달랐기에 그저 '동네를 기록하는' 일을 재미있는 모험처럼 받아들였고, 가능하면 기록과정에서 얻은 영감을 창작의 기회로 삼아보기로 했다. 김태린 씨의 이야기다.

"솔직히 기록의 의미보다 뭔가 동네를 들여다보는 활동 자체에 끌렸어요. 개인적으로 디지털 드로잉이나 애니메이션 쪽 일도 하고 있는데, 연결해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머무는 공간을 쌓다

그렇다고 활동이 가벼웠던 것은 아니었다.

③

④

뚝섬유원지부터 주택가와 아파트 곳곳, 재래시장 등으로 활동반경을 넓혔고, 그만큼 자양동의 다양한 표정을 만났다. 동시에 나무간판부터 의자, 출입문까지 켜켜이 시간의 두께가 묻어나는 이용원, 전파사처럼 과거와 현재가 함께 머물고 있는 공간의 오늘도 쌓여갔다. 마침 청년과 기록이라는 조합이 눈에 띈 덕분인지 광진구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서 받은 지원은 좋은 연료였다. 자양5동은 이를 '이웃기웃'이라는 전시와 작품집으로 선보였다.

2019년 말부터는 광진문화재단과 협업이 본격화됐다. 광진문화재단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소소한 축제〉에 전시로 참여한 것이다. 이듬해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는 광진문화재단의 'N개의 작당모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진행한 활동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이라 온라인 전시로 소개했다. 또 이때부터는 '왜 기록을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기존 사진 매체에 한정하지 않고 영상매체를 활용하는가 하면 나름의 해석을 가미한 디자인을 접목하는 등 한층 풍성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경험도 적지 않았다. 동네의 한 구성원임을 확인하게 된 의미도 각별했다는 홍석민 씨의 사연이다.

"우리가 인터뷰한 이용원이 알고 보니 아버지의 단골이었어요. 얼마 뒤 이용원을 찾은 아버지가 우리 애들이 여기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⑤

⑥

①
자양5동 청년들
②
자양동
③④⑤⑥⑦⑧
자양5동 청년들이 기록한 자양동 모습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라포rapport가 형성되는 걸 봤어요. 기록이 사람을 연결하는 요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억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일

홍지연 씨는 기록이 기록을 부르는 연쇄적 감흥을 전했다.

"기록하지 않으면 휘발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전에는 동네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가 기록을 하자 제 생각도 끊임없이 변하는 걸 느껴요. 여기가 내가 진짜 사는 곳이구나, 그동안 늘 보아오던 곳이 없어질 때의 이 서운함의 정체는 뭘까, 공간이 변한다는 건 내게 무슨 의미일까, 나아가 변화를 멈출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덜 슬프고 아쉬울까 하는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한편으로 그런 질문과 궁금증이 기록활동을 계속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잘 살고 행복하려는 노력이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록의 효용도 발견하면서요."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2021년 말 현재 자양5동 청년들은 '지역문화기록프로젝트'를 한창 구상 중이다. 광진구라는 곳을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기록해볼 수 있을지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각자 개별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려 한다.

이 역시 광진문화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일인데, 그 사이 새로운 동료도 합류했다. 4년 전 직장이 있는 자양동에 둥지를 튼 이재영 씨로,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자양5동의 전시회를 접하고 기록활동에 꽂혔단다.

"고향을 찾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흔적이

⑭

⑮

⑨
전시회 준비 모습
⑩
전시회 모습
⑪
2019년 우리동네 자양동 아카이브 전시회 포스터
⑫
김태린 〈홈타운〉
⑬
2019년 만든 아카이브 자료집 〈이웃기웃〉의 한 챕터
⑭
홍석민 〈이름모름〉
⑮
자양동에서 바라본 한강
⑯
재래시장 상인을 인터뷰하고 있다
⑰
자양5동 청년들이 기록한 자양동 모습

⑯

⑰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없어지기 전에 어떤 행태로든 남겨야 할 텐데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자양5동의 활동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기록이야말로 사라지는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되돌아오도록 복원하는 연결고리니까요. 올해 4월부터 함께하면서 지역문화기록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어요. 연필이나 펜 등으로 세상을 관찰해 드로잉 방식으로 기록하는 '어반스케치'를 배워 동네를 그리고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700년된 나무, 시장… 지역문화기록프로젝트 기획 중

얼마 전 타 지역으로 이사가 이제는 더 이상 자양동 주민이 아닌 태린 씨는 떠난 사람의 시선으로 자양동 곳곳을 영상으로 남기겠다는 계획을, 석민 씨는 3년 전 동주민센터 옆에서 발견하고 그 거대함에 압도됐던 700년 된 나무를 사진으로 기록하겠다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다. 진지한 지연 씨가 눈여겨보는 곳은 시장이다.

"광진구에 노룬산 골목시장과 영동교 골목시장이 쭉 이어져 있는데, 영동교 골목시장 한쪽이 재건축으로 없어졌어요. 일상적으로 다니던 시장이, 지역 역사와 사람들이 연결된 공간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구나 싶어 충격을 받았어요. 사라진 시장 한쪽과 아직 남아 있는 시장에 대해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따로 또 같이'라 외려 끊기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고, 이제 기록과 문화예술 활동을 연결하고 있는 자양5동 청년들에게 3년여 활동의 소회를 물었다. 석민 씨가 지체 없이 쏟아낸 감상이 특별했다.

"활동하면서 '왜 기록을 해야 하나'를 자꾸 물어보게 됐어요.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법륜스님 말씀처럼 인간은 들풀에 불과한, 그래서 우주의 먼지 같은 슬픈 존재라는 인식이 거꾸로 기록의 이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비록 사라지지만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기록된다면 덜 슬플 거 같거든요. 기록하면서 저도 같이 기록되니까 저는 기억되는 들풀이 되는 거죠."

❷ 개발 이익으로 마을 기억공간 만들면 어떨까요?

이문동 청년기록단체
‘이문모아’ 조진한 대표와 김보경 씨

①

기억은 장소와 함께 온다. 좁은 골목길 띄엄띄엄 불 밝힌 가로등을 보며 함께 걷던 그 밤을 떠올리고, 쇠락해가는 목욕탕 굴뚝에서는 억척스레 나를 씻겨내던 엄마의 젊은 얼굴이 보인다. 파란 대문 앞에 서면 부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들어갔던 집에서 풀처럼 쑥쑥 자라던 어린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온다.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고, 같은 시절을 보낸 집과 동네는 늙어 낡아지거나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들은 애처로워 누군가의 가슴에 붙잡고 싶은 마음의 싹을 틔운다. 그 싹들을 함께 키우는 청년들, ‘이문모아’의 조진한 대표와 김보경 씨를 만났다.

이문동 기억 모아모아 ‘이문모아’

‘이문모아’는 2018년부터 서울 이문동을 기록하고 채워나가는 비영리 청년단체이다. 조진한 대표가 대학이 많은 동네에서 학교 경계를 넘어 여러 청년들과 만나 활동하고 싶은 마음을 SNS에 올렸고, 2명이 답했다. 조진한 대표가 전하는 이문모아의 조촐했던 시작이다.

②

“경희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 세 대학이 이문동을 중심으로 15분 거리에 있는데 같이 활동하는 건 없더라고요.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학교를 넘어 모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세 학교의 거점인 이문동에서 사람들과 기록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문모아’가 만들어졌어요.”
취업과 경쟁에 지친 청년의 삶은 2018년에도 다르지 않아, 이문모아 세 사람은 첫 프로젝트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락 여행’을 기획했다. 도시락을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을 보내면 이문모아가 집밥 같은 도시락을 배달해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해주는 프로젝트였다.
갓 시작한 모임의 첫 프로젝트라 신청자는 많지 않았고, 크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사비를 털어 청년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걷다가 만난 이문동 재개발 현장

‘도시락 여행’은 뜻하지 않게 이문동 여행이 됐다. ‘집밥 같은 도시락’을 마련해줄 식당을 찾아 이문동 곳곳을 돌아다니다 기존 통학 경로에서 벗어났고 마을의 속살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대로에서 50미터만 들어가도 낡은 주거지와 좁은 골목길이 전혀 다른 풍경으로 펼쳐졌고 그 풍경 위에는 재개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재개발’이 처음으로 내 일로 인식된 순간이었다. 재개발이 내가 살아가는 장소를 지우고, 공간을 공유하던 이웃의 삶을 흔드는 일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다. 그 후 이문모아의 활동은 지워져가는 이문동을 기억할 수 있는 일들로 채워졌다.
“동네를 다니면서 재개발이 생각보다 제 생활 깊숙이 있어 충격을 받았어요. 마을 활동을 하자고 모인 팀인데, 이런 이슈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우리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하다가 눈에 들어온 게 생활쓰레기였어요. 재개발로 다들 이사를 가다보니 골목마다 생활쓰레기가 많았거든요. 이문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를 중심으로 기록물을 수집했고, 그 쓰레기들을 재배치해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쓰레기 전시로 되살린 사라진 마을과 기억들

2019년 2월에 열린 이문모아의 첫 번째 전시

③

④

⑤

⑥

① 재개발 현장의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초인종
② 조진한 대표와 김보경 씨
③ ‘안녕, 이문’ 전시물인 도로명 표지판
④ ‘안녕, 이문’ 전시물인 만복탕 간판
⑤ 사라지는 주소와 문패
⑥ 재개발 지역 빈집

⑦

⑧

⑨

⑦
더 이상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골목

⑧
떠나야하는 주민

⑨
언덕 위 동네

⑩
전시회 방명록

⑪
이문모아 회원들이 함께한 모습

'재개발 리듬' 이야기다. 이문모아와 청년작가가 협업해 수집창고 역할을 했던 동네카페 지하공간을 전시장으로 바꾸고 '쓰레기들'을 새롭게 배치해 이문동의 과거와 현재를 보이고자 했다.

타일 벽에 붙은 낡은 전단지, 이제는 사라진 서울극장과 코리아극장의 입장권, 스프링이 빠진 낡은 앨범 속 노릿해진 사진과 필름, 비단 이불보…. 누군가는 그 전시에서 과거의 낭만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사라지는 것들을 애도했다. 전시는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고, 이문모아는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이문동이라는 장소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기록을 함께 공유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온 동네를 돌면서 버려진 쓰레기를 일일이 검수한 후 필요한 것을 수집하고 재포장해 창고로 옮겼다가 다시 전시하기까지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보니 우리 활동을 알고 먼저 기증해주시는 분도 생기더라고요. 이사를 가면서 결혼할 때 해온 비단 이불보를 주신 노부부처럼요.

전시 조명에 사용했죠. 그 전시로 이문모아가 관심을 받게 되자 본격적으로 마을기록 쪽으로 활동을 전환하게 됐어요."

떠나는 이문동과 새로운 이문동에게…

마을기록의 방점은 '마을'에 있다. 마을과 사람들을 엮고, 서로의 장소와 장소에 깃든 추억을 나누기 위해 '기록'이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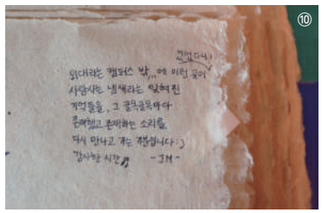
"이문모아가 아카이빙 전문 활동팀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마을에 대한 다양한 활동 가운데 우리는 마을을 중심으로 서로의 경험이 깃든, 마을을 추억할 수 있는 기록들을 모으고 이를 우리 방식대로 풀어서 공유하는 활동에 주력해요."

그 결과가 이문동에서의 시절을 나누는 인터뷰,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이문동과 휘경동을 중심으로 마을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사진들이다. 외대역 앞의 상징이기도 했던 기찻길 '땡땡이' 같은 소리도 모았다. 이렇게 수집된 기록은 사진집으로, 전시로, 책자로 담아냈고 마을을 거쳐 간 사람들은 키를 맞추듯 장소에 대한 추억을 맞춰본다.

"2019년 연말에 연 두 번째 전시가 '안녕, 이문동'이었는데, 헤어지는 이문동과 새로운 이문동에 인사하는 의미를 담았어요. 2019년 생활기록을 모았던 집과 골목은 모두 사라지고 평평한 땅이 됐어요. 지금은 트럭만 오가며 기반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태도 기록하려고 출사를 다니고 있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더 빨리 마을을 기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장소에 대해 관심이 높았던 김보경 씨는 재개발로 사라지는 이문동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2019년부터 이문모아에 합류했다. 주민 상당수가 이미 마을을 떠난 상태, 김씨는 그 아쉬움만큼 더 치열하게 고민한단다.

"인간의 정체성은 기억에서 비롯되잖아요. 과거의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지금의 경험이 누적돼 미래의 나를 구성하겠죠. 그런데 기억은 장소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만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장소의 생로병사를 멈출 수는 없겠지만 이를 늦추는 노력은 필요하고, 그런 장소와 제대로 이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⑩

⑪

'마을기록활동지원조례'와 '기억공간'

장소에 깃든 삶의 흔적과 기억들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은 동시대를 산 이들에게 공통의 기억을 끄집어낸다. 조진한 대표가 마을기록은 마을에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이는 조 대표가 '마을기록활동지원조례'를 제안한 것과도 연결된다.

"마을기록은 특히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특정 기록물만 뚝 떼어내면 특정 장소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정보적 의미밖에 없어요. 할수록 느끼는 건 기록은 결국 사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지, 그 기록들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지 모두가 사람이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뤄지는 기록화 사업을 보면 대부분 마을 기록을 수집해 더 큰 지역의 기록을 채우는 형태로 이뤄져요. 하지만 기록이 마을이라는 맥락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 이런 게 아쉬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마을기록을 수집할 수 있고, 마을 안에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기록은 마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어떨까 해서 조례를 이야기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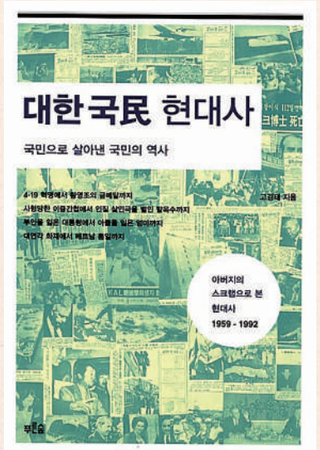
제안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 대표의 구상은 새롭게 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억공간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문동 같이 재개발이 이뤄지는 곳은 개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이익을 사회와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마을 기억공간'을 만들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라진 마을을 기억과 정체성,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고, 새로 정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허브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조 대표는 법과 제도는 현장의 길을 열어주고, 현장은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갇힌 마을기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문 스크랩북을 깨워 아들이 다시 낳은 '아버지 아카이브'

36권 스크랩북으로 재구성한 국민의 역사
<대한국民 현대사> 발간기



고경태
〈한겨레〉 기자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이 된 1971년 4월28일 아침, 아버지는 이 스크랩 밑에 '대통령 각하'라는 제목의 시를 적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로 시작해 "당신의 얼굴을 익힐 때까지/ 서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로 끝난다. 나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귀여워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아버지가 신문 스크랩을 하던 모습 말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시골의 작은 기와집 마루에서였다. 아버지는 밥 알갱이로 풀죽을 쑤어 양은 세숫대야에 담았다. 쌓아놓은 신문 뭉치에서 한 장씩 꺼내 왼쪽 손으로 30센티 대나무 자를 대고 나머지 손으로 지면을 죽죽 찢어 잘랐다.

딱풀, 칼, 가위도 귀하던 때였다. 작고 넓적한 페인트 붓 같은 걸로 신문지 뒷면에 풀을 바르고 마분지 양면에 붙였다. 그러고는 제본까지 직접 했다. 특별히 두껍게 만든 표지 앞뒤로는 신문기사 조각들을 덕지덕지 붙여 장식했다. 그땐 난삽하다고 여겼는데, 시간이 흘러 다시 보니 '콜라주'였다.

자와 풀로 신문 스크랩하던 아버지의 실루엣

그 뒤 소도시로 이사를 갔다. 아버지에게 서재가 생겼고, 그곳에 들어가면 좀체 나오지 않았다. 자와 풀로 신문 스크랩 작업을 하던 아버지의 실루엣은 더 이상 기억에 없다. 서재의 책장에 조용히 스크랩북이 늘어갔을 뿐이다. 꼬마 때부터 나는 틈날 때마다 그걸 꺼내, 보고 또 보았다. 신문기사는 제목만 보였다. 기사 옆에 붙여놓은 4컷 만화와 만평을 즐겨보았다. 만화에 숨은 현실 풍자의 맥락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저 재밌고 웃겼다. 1959년에 제1권을 기록한 아버지의 스크랩은, 1992년 긴 여정을 끝냈다. 1993년 1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굵직한 사건 기사를 붙인 25권을 비롯한 36권의 스크랩북이 남았다. 스크랩북은 오랫동안 서가 한 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잠들어 있었다. 남은 가족 모두는 그것을 아버지의 숨결과 노고가 배어 있는 가보라고 생각했지만, 특별히 보물 대접을 해줄 다른 방도가 없었다. 작은 아들인 내가 결국 잠든 스크랩북을 깨워 세상에 내보냈다는 사실은 스스로 돌아봐도 대견하다. 아버지가 떠난 지 18년이 된 2011년 초였다. 만화만 골라 보며 키득대던 꼬마는 어느덧 성장해 중년의 기자가 되었고, 본인의 이름을 건 세 번째 책 출간을 구상하던 중 아버지의 스크랩을 떠올렸다. 그리고 스크랩북을 날마다 들여다보며 뼈와 살을 추려낼 계획을 세웠다. 2013년 5월, 마침내 아버지의 스크랩은 〈대한국民 현대사〉(푸른숲)라는 책으로 재탄생했다.

"저승의 아버지가 이승의 아들을 열공시켰다"

결심에서 출간까지 2년이 걸렸다. 막상 책 구성과 집필에 들어가려고 하니 막막하고 암담했다. 아버지가 짬 날 때마다 수집해 붙이고 색연필로

줄을 치거나 중요 표시를 한 신문기사와 만평, 볼펜으로 끼적거린 감상과 의견을 어떻게 책 한 권에 녹여야 하나. 참고하거나 선행 모델로 삼을 만한 책은 전혀 없었다. 34년치 스크랩 기사와 아버지의 글을 요약만 할 수는 없었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 했다. 스크랩북을 기반으로 하되 독창적인 제3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했다.

일단 스크랩북 기사에 담긴 주요 사건들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다. 단편적 '팩트fact'를 넘어서는 통사적 지식이 있어야 했다. 가령 스크랩북 제1권에 있는 '위대한 독립의 거성, 이승만 박사 서거'라는 제목의 기사 앞에서, 나는 고민했다. 4·19혁명 이후 각계각층의 데모에 관한 비판적 신문 칼럼 앞에서, 나는 고민했다. 데모대를 향한 적의가 느껴지는 아버지의 시 앞에서, 나는 고민했다. 고민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진실에 논리적으로 접근할 역량을 갖춰야 했다. 책 서문에서 나는 "저승의 아버지가 이승의 아들을 '열공'시켰다"고 썼는데, 실제로 그랬다. 각각 23권과 17권에 이르는 강준만 교수의 〈한국현대사 산책〉, 〈미국사 산책〉(인물과 사상사)은 최적의 참고서였다. 각 시기별 의미와 사건들의 개요, 레퍼런스reference가 될 만한 도서들이 잘 정리돼 있었다. 이걸 기본으로 삼고 특정 사건과 인물을 다룬 단행본을 추가로 찾아 탐독했다.

1974년 8월 육영수의 피살 직후 스크랩된 이 사진과 시에 관해 나는 〈대한국民 현대사〉에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너다. 범인은 너다. 빛바랜 파란 사인펜 글씨가 점점이 흩어진 뒤 권총의 형상이 되어 나타나 사진 속 그의 머리를 겨눌 것만 같다. 웃지 말고, 담배 끄고…자백하라! 죄없는 49세 여인 육영수는 결국 당신이 죽였다고!"

나만의 방식으로 소화, 선별, 표현하며 얻은 영광과 보람

공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나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선별하고, 표현해야 했다. 글감으로 요리할 것들만 따로 고르고,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잡아내 연결시켜야 했다. 아버지의 스크랩북 제5권에 등장하는 미군의 민간인 연쇄 린치(1962년 6월), 최영오 일병 사형 집행(1963년 3월), 화폐 개혁(1962년 6월),

만화만 골라 보며 키득대던 꼬마는 어느덧 성장해 중년의 기자가 되었고, 본인의 이름을 건 세 번째 책 출간을 구상하던 중 아버지의 스크랩을 떠올렸다. 그리고 스크랩북을 날마다 들여다보며 뼈와 살을 추려낼 계획을 세웠다. 2013년 5월, 마침내 아버지의 스크랩은 <대한국民 현대사>라는 책으로 재탄생했다.

김두한 의원 똥물투척1966년 9월이 그랬다. 각기 사회적 울림이 각별한 사건이었지만 전부 따로 쓰려니 장황해질 것 같았다. 하나로 모으자니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고심 끝에 맨 앞 사건에 등장하는 '린치lynch'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네 사건을 '참혹한 린치, 비련의 린치, 황당한 린치, 통쾌한 린치'로 하나의 글 안에 정리한 것이다. 억지춘향 같기도 했지만, 써 놓고 보니 깔끔한 한 방이었다.

다른 사건들을 서로 연결하다가 뜻하지 않은 발견을 하기도 했다. '너의 무대는 공항이냐 다방이냐'라는 제목의 글이 대표적이다. 스크랩북 제7권과 제8권을 통합적으로 보며 1970년대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납치극 하이재킹hijacking을 벌인 적군파 요원들과 국내의 다방 인질범들을 대비시킨 글이다. 스크랩에 등장하는 다방 인질극 사건의 패턴은 거의 비슷했다. 총을 든 범인이 애인 또는 손님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한다→경찰에게 차 한 잔 마실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다(때로는 라디오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심야의 블루스〉 같은 노래를 신청한다)→총격전 끝에 사살 또는 자살, 아니면 항복. 제목 그대로 적군파의 납치가 공항을 무대로 했다면 국내 인질범들의 주 무대는 모조리 다방이었는데, 다방이라는 공간이 무척 흥미로웠다. 성림다방, 소라다방, 서울다방, 대호다방, 유네스코 다방…. 박정희 1인 철권통치와 산업화 무한질주의 그늘 속에서 총을 들고 다방에 쳐들어가 세상을 저주하며 발악한 그들을, 나는 '작은 적군파'라고 호명했다.

1967~1968년 남북한 간 군 교전 횟수가 이전보다 열 배 이상 증가하고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휘말리면서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다. 예비군들의 사격훈련을 위해 전국적으로 생긴 무기고가 인질범 무기의 조달처였다. 아메리카노가 없던 시대, 설탕과 프림을 넣은 달짝지근한 커피에 아침이면 달걀 노른자를 띄워주던 다방은 도시의 최신 핫플레이스였다. 예비군 무기고에서 소총을 훔친 자들이 도심의 다방에서 활극을 벌이는 장면은 병영국가의 날개를 펴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서늘한 단면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의 다방 인질극을 다룬 책과 논문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나 한때 신문에 도배가 됐는데 말이다. 뒤늦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규찬 교수의 학술논문 〈대중교통 사건으로서의 다방 인질극의 탄생〉이 2016년 발표되었다. 이 논문이 '너의 무대는 공항이냐 다방이냐'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해당 교수에게 전해 들었다. 영광이자 보람이었다.

아버지의 스크랩 최대 발견은 아버지

아버지의 스크랩으로 세 번째 책을 쓴 나는, 여기서 네 번째 책 아이디어도 얻었다. 2015년 2월 출간한 〈1968년 2월 12일〉(한겨레출판)이다. 스크랩북 제6권에 있는 1968년 신문기사들은 워낙 스펙터클해 눈이 찔리는 느낌을 받을 지경이었다. 그해 1월 21일 북한 무장특수부대원 31명의 청와대 습격기, 1월 23일 북한군에 의한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치, 1월 31일 베트남 구정 대공세 등 상상을 초월하는 영화적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1999년부터 기자로 취재했던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이 집중된 해도 1968년이었다. 두어 번 취재하고 보도하다 접었던 한 사건을, 스크랩을 계기로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게 됐다. 관련한 책과 논문도 찾아 읽었다. 한반도와 베트남, 일본과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잇는 1968년의 세계사적 인과관계가 눈에 들어왔고, 책을 쓰고 싶어졌다. 나는 한국과 베트남의 취재원들을 다시 찾아나섰다. 한데 왜 1968년 하고도 2월 12일인가. 궁금한 분들은 2021년 개정판을 낸 〈베트남전쟁 1968년 2월 12일〉을 찾아주시길.

그래도 아버지의 스크랩 최대 발견은 아버지 자체였다. 낯선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다. 1971년 박정희의 대통령 3선 당선 소식을 전하는 기사 스크랩에서 박정희 얼굴사진은 당일 만평으로 가려진 상태였다. "당신의 얼굴을 익힐 때까지/ 서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라는 시와 함께. 무리를 해가며 세 번씩이나 대통령을 해먹는 당신이 오늘은 보기 싫다는 뜻이었을까. 아버지도 한때 반정부였다니 신선했다. 사후에 만난, 아버지의 가장 귀여운 모습이었다.

30년 넘게 한 스크랩을 순서대로 보면서 아버지의 성장이 느껴지기도 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글에서는 미숙함과 유치함이 엿보였고, 50대 이후로는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읽혔다. 스크랩의 제호는 '墓碑모비'였는데 고독과 허무는 일관된 정서였다. 가장 반가운 것은 통찰이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살 직후 박정희 대통령 부부의 다정한 한때를 보여주는 사진과 그 위에 사인펜으로 적은 '경축사에 부치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에는 통찰 부문 1등상을 주고 싶었다. '박정희 암살 미수, 육영수 피살사건'이 1년 전 '김대중 암살미수 납치사건'의 업보임을 간파한 듯한 이 스크랩은 비주얼 부문에서도 '멋짐 폭발'이었다. 그 밖에도 멋진 스크랩은 많았다. 스크랩을 꼼꼼히 관찰하며 아버지에게서 '종합예술인'의 기운을 느꼈다면 과장일까.

'개인 아카이브의 모범' 아버지 스크랩, 온라인 전시 해볼까

아버지는 생전에 가족 외 그 누구에게도 스크랩북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들인 내게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아버지에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이거 왜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은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알 것만 같다. 외로웠으니까, 말하고 싶었으니까. 광야에서 소리치는 대신, 스크랩북을 편집하고 제작하며 무언가 쓴 것이다. 늦었지만 이런 칭찬을 아버지께 드리고 싶다. "스크랩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개인 아카이브의 모범, 아니 절창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있지요. 덕분에 책 나온 지 8년이나 지났는데 서울기록원에서 이런 글을 청탁받아 쓰고 있잖아요."

2021년, 아버지의 스크랩은 다시 베란다 창고에 잠들어 있다. 나는 또 누군가가 스크랩북을 흔들어 깨우는 상상을 해본다. 재밌는 개인 소장품이자 역사 전시물로서의 가치가 분명하니까. 아버지의 스크랩을 블록체인 기반의 NFT대체 불가능 토큰로 만들어 온라인 전시를 하는 꿈도 꿔본다. 아직은 꿈이다.

"인생은 모두 고독한 운명"이라고 아버지는 자주 적었다.

신문기사와 만평 조각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스크랩 표지 안쪽. 어릴 때는 난삽하다고 여겼는데 시간이 흘러 다시 보니 '콜라주'다.

2021

Seoul Archiving Book

Part 2

기록, 넓어지다

서로에게 성장 기회 주는 마을활동과 기록의 선순환

박현주 씨가 만든 학부모모임 10년 활동 연대기 아래서 토론회에 참여한 김종임, 최진, 박현주, 오현애, 이성호(왼쪽부터) 마을기록활동가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금천구 '마을기록 고수'들에게 듣는 기록의 맛과 효용

서울기록원은 시정기록을 관리하는 공공아카이브일뿐 아니라 시민 속의 기록문화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서울의 역사와 시간을 상징하거나 시민의 삶과 기억 등을 담고 있는 기록을 수집하는 '서울기록화사업'을 4년째 추진해오는 이유이다.

2021년 서울기록화사업의 수집 주제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이 있다. 사실 서울에서 마을의 위치는 모호했다. 지리적, 물리적 환경과 정서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마을 개념이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로 흐려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 10여년 사이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교감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지역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서울에서 '마을'이 되살아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머리를 모아 해결하고, 서로 어르신을 살피고 아이를 돌보는가 하면 함께 축제나 문화공연을 기획해 즐기는 일이 서울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활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 '기록'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동의 관심사와 공감에서 출발한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는 기록으로 남았고,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구체적인 매개로 기록활동을 활용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마을공동체기록관'을 탄생시킨 서울 금천구를 꼽을 수 있다. 마을기록관은 300여개에 달하는 주민자치활동 팀들의 활동기록물이 모이고 공유되는 플랫폼. 금천구에서는 이 외에도 해마다 마을기록가학교를 개최해 기록하는 주민을 양성하고 '소소한 마을전시'라는 제목으로 전시활동까지 펼쳐지고 있다.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마주한 주민공동체들의 기록을 모아 '재난과 공동체' 전시회를 열고 있다.

서울기록화사업은 이러한 금천구의 마을만들기 지원활동을 수집하는 동시에 '짱짱한' 기록활동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을기록 고수'를 찾아 나섰다. 주인공은 김종임(가산마을방송국 PD), 박현주(금천학부모모임 기록전 담당자), 오현애(교육나눔협동조합·마을인교육 이사), 이성호(지역신문사 금천아이엔 편집장, 금천라디오 PD), 최진(마을기록가학교 1기) 등 다섯 시민이다. '일상이 기록'이라 말하는 이들과의 만남은 2021년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금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청마루에서 이뤄졌다.

Q **반갑습니다. 먼저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성호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지역신문 '금천in' 만드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 계기가 기록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지역주민의 삶이나 단체들의 활동을 기록해 알리는 곳이 없었거든요. 또 하나 현대 국가기록은 있는데 지역의 현대사 기록은 없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런 고민이 각각 지역신문으로, 어르신 구술채록과 영상 제작으로 이어졌고요. 차츰 데이터가 쌓이면서부터는 우리의 콘텐츠 개발문제부터 주민들이 어떻게 이 기록물들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까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쓰임을 확인하며 기록의 중요성 인식하게 돼

박현주 결혼 후 육아 때문에 친정 동네인 금천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 마을이 궁금해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좋은 강좌가 눈에 띄면 들으러가고요. 학부모 활동을 비롯해 참여하는 마을 활동이 점점 늘어났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2010년쯤 혼자만 알기 아쉬워 블로그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이 있더라, 보고 느낀 걸 정리해 올렸더니 누군가 보고 반응을 해요. 그게 신

금천마을공동체기록관의 기록전시회 기획회의 모습

나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 올렸더니 구청 직원까지 콘텐츠를 사용해도 되느냐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점점 일반 주민의 시선도 필요하다는 쓰임을 확인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진 거 같아요.

최진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시흥5동에 10년을 살면서도 집과 회사만 오가는 주민이었죠. 2019년 말인가, 마을자치위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보고 무작정 문을 두드렸어요. 지역 아이들과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자치위원이 된 후 실제로 마을의 제로 제안하여 아이들과 기획해 드론을 날리고, 3D펜으로 물건을 만들기도 했어요. 자연스레 여러 행사에 함께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최종 결과인 이벤트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기획부터 역할을 나누고 회의를 거듭하며 실무준비를 하는, 훨씬 비중이 큰 과정은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잊히고 만다는 거였어요. 무조건 로그기록이 남는 컴퓨터 관련 일을 해서인지 제안을 해서 조금씩 영상으로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 덕분에 '마을기록가학교' 과정까지 이수했어요. 동료를 만나면서 기록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중입니다.

박현주 당시 자치위원으로 안내한 사람이 전데, 진짜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분이 나타나셨나 할 만큼 최 선생님의 등장을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초 기록을 가진 금천구 마을교과서

오현애 저는 지금 서른한 살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때로, 좀 많이 올라가야 해요.(웃음) '우리 동네 알기'라는 숙제를 가져온 거예요. 인터넷 정보도 지금처럼 풍부하지 않았고, 도서관 자료도 빈약했어요.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던 차에 2012년 '교육나눔협동조합'에 함께하면서 지역 문화유산을 체험교육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본격적으로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죠. '금천문화역사포럼'이라는 단체도 만들어 금천구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은 기록을 정리해 만든 것이 '최초의 우리 마을 역사기록 워크북'이었습니다. 이것이 근간이 돼 초등 3학년 대상 교과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2015년 첫 결과물을 내놓았어요. 역시 '최초의 마을교과서'였죠. 이후 남부교육청부터 타 자치구,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됐는데, 현재 2022년 교과서까지 발간됐어요. 그러다보니 마을 이야기들이 보였고, 동별로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연결됐어요. 지금은 〈마을여행〉처럼 기록이라는 원재료에 그림작가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이 협업해 창작물을 내놓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이성호 이제는 금천의 역사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오 선생님께 연결됩니다.

오현애 누군가는, 어딘가에는 축적을 해야 되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현재는 고려시대 금천의 역사기록를 찾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금천구의 학교 100년사도 이야기해볼 예정이고요.

시민기록 모아 역사 만든다

김종임 결혼하고 죽 가산동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프로그램을 찾다보니 동네 곳곳에 행사가 열려요. 나중에 보니 거의가 마을공동체사업이었는데, 신기하게 행사 사진을 보면 우리 가족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우리 가족이 나오는 기록만 찾아도 마을기록이 되겠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어요.(웃음) 자연스럽게 기록에 관심이 생기던 즈음 마을기록관을 알게 됐고, 마을기록가학교 1기 교육에 참여하면서 기록활동에 발을 들여놓았네요. 현재는 마을방송국 PD를 하면서 주민자치회 등 가산동 소식을 전하는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매달 만들고 있고, 〈금천 향기〉라는 소식지에 글도 싣고 있어요. 가산동 역사기록을 만들 계획이고요. 거절을 못해서인지 활동이 문어발식으로 늘고 있어요.(웃음) 하다 보니 모두 기록으로 연결되네요. 모르는 게 많아 힘들지만 무엇보다 재미있고 이런 우리의 기록이 모이면 또 역사가 되겠다 싶으니까 부듯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Q 누구나 '기록인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꺼내서 활동과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다섯 분은 그 인자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록하는 성향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이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다 공동체활동을 하면서 서로 보고 배우면서 드러나는 거죠. 저는 종임 선생님이 정말 부러워요. 마을활동을 진심으로 즐기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금천구에서 주목받는 마을기록활동 유망주예요.(웃음)

지역 주민과 교사, 재능 가진 자원들이 협업하는 법

Q 금천구에서는 마을활동에 활기가 돌면서 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록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발전하는 시너지 과정이 또렷하게 감지됩니다.

오현애 그 부분은 음으로 양으로 확실히 느끼는 당사자예요. 솔직히 아들의 숙제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 동네는 볼품이 없었달까요, 내세울 만한 문화재도, 유산도 몰랐거든요. 지금은 역사문화공원과 거리가 조성돼 있고, 주민들도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즐기세요. 마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우리의 기록을 발견해 의미를 찾아내고 전파한 덕분에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파생될 수 있었어요. 또 박 선생님 말씀처럼 마을과 기록은 서로 성장의 기회가 돼요. 우리 교육나눔협동조합이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를 주관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인형극이 탄생했어요. 지역의 실버 극단 '금빛노을인형극단'의 어르신 단원들과 컬래버해 사업 과정에서 얻은 산성山城 기록을 주제로 극을 만들어 초연을 올린 거죠. 금천을 담은 그림도 세대별로 정말 다양해요. 마을기록활동을 통해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여러 매체 방식을 엮어 서로 성장하고 향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김종임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세 아이가 마을교과서로 동네를 배웠다니까요.

박현주 그 마을교과서의 캐릭터 '한내'와 '금천이'를 제 딸이 그렸답니다.(웃음) 마을교과서 자체가 지역 주민들과 교사, 재능을 가진 자원들의 합작품이라 각별해요. 기록을 매개로 주민이 만나고 재미있는 활동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대다수가 기록이 습관화됐어요. 문턱 낮은 소셜미디어 덕분일 텐데, 편하게 활동기록을 올리고 서로 댓글을 달고 응원하는 일이 일상이에요.

금천구 마을기록활동가들

관계부터 동네 VR 기록화까지…
금천 주민의 다채로운 구상들

Q '마을기록 고수'들이 계획하는 혹은 시도하고 싶은 기록활동이 궁금합니다.

오현애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었던 올해 새롭게 시험해본 것이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진행한 '우리동네척척박사'예요. 드론으로 산꼭대기 호암산성을 촬영하면서 아이들과 VR체험도 했고요. 그때 금천구의 다양한 공간과 표정을 영상으로 담아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영상시대잖아요.

최진 영상작업은 제페토나 로브록스 같은 메타버스에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웃음) 기록은 제게 추억이에요. 15살 지나도록 살아온 집이 허물어지고 신축 건물이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엄청 충격을 받더라고요. 기억은 생생한데 추억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동네를 계속 기록하는 이유예요.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몸의 변화와 관련 정보를 기록해볼 예정이에요. 저 역시 여기저기 몸이 비명을 지르는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 몸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고 기록화해 나누면 굉장한 정보가 되겠더라고요.

김종임_ 제 경우는 활동에 가까운데, 가죽공방 같은 지역의 가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 이는 관계 맺기를 기록하는 것이기도 해요. 학군 등의 이유로 금천구를 스쳐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관계맺기를 통해 금천구가 떠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과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해요.

박현주_ 금천구가 분리돼 독립 자치구로 된 지 26년 정도 됐으니 역사가 긴 편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강원도의 한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가장 울림이 컸던 기록이 공부만 해온 선비가 평생 써온 일기였어요. 성공한 사람의 흔적만 기록인 건 아니잖아요. 후대에게는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기록이 훨씬 소중할 수도 있고요. 그에 견줘서 마을활동을 하는 분들이 남기는 기록 하나하나가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기록이 잘 만들어지고 공유될 수 있도록 돕고 싶고요.

찾아오는 기록교육,
기대해도 될까요

Q 선행 경험이 풍부한 금천구인 만큼 마을에서 주민들이 기록활동에 참여하고 즐기기 위해 필요한 부분도 앞서서 파악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임_ 아, 서울기록원 같은 기록기관에서 '찾아가는 교육' 안 될까요? 저처럼 아이가 있는 경우 먼 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거든요. 신청하면 '찾아오셔서' 여러 기록교육을 해주면 좋겠어요.

박현주_ 공감해요. 낯선 곳에서는 위축되고 긴장하게 되잖아요. 참여하는 분이 친숙한 공간에서 교육이 이뤄지면 용기 있게 질문도 하고 편한 분위기라 이해도 높아질 거예요.

오현애_ 마을에도 유형의 기록물은 물론 영상이나 소리 녹음 등 전자기록물이 쌓이면서 저장하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최진_ 맞아요. 저장공간 문제는 개인이 풀기 어렵고, 공유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요. 금천마을기록관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면 마을기록활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겁니다.

금천구민 이성호 씨가 선정한 '나의 기록'은

주민과 단체가 주어인 마을신문 '금천in'

제가 선정한 나의 기록은 마을신문 '금천in'입니다.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한 달에 두 번 발간하고 있어요. 금천in을 저의 마을기록으로 선정한 이유는 말 그대로 제가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나아가 제가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 10주년을 맞았는데 그 시간 동안 금천in을 통해 주민을 만나고 활동을 살펴왔어요.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과 만났고요.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사의 '주어'예요. '누가 어떤 관점으로 살피고 기록하느냐'인데, 일반적으로 접하는 보도자료는 대개 주어가 '금천구는…' 혹은 '금천구청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반면 금천in의 주어는 거의 주민과 단체입니다. 주민의 시선에서 각종 사안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지향은 변함없이 유지될 텐데, 다만 이 마을신문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존폐 여부에 천만 유저들의 학창시절과 추억이 휘둘리잖아요. 현재 지상 최대의 기록저장소인 유튜버도 영원할 거라 확신할 수 없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민 박현주 씨가 소개하는 '나의 기록'은

페이스북 기록 묶은 '블록북'과 가족사 담은 <금하에 살다>, 학부모모임 10년 연대기

제 기록 중 3개를 가져왔는데요, 첫째는 개인기록이자 마을기록인 '블록북-전봇대에게 말걸기'예요. 2012년 5월 1일부터 2017년 8월 9일까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올려 공유해온 제 이야기를 묶은 400쪽 분량의 책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의 과거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소셜미디어이더라고요. 광고를 보고 꽤 부담이 됐지만 의미 있겠다 생각해 제작했어요. 두 번째는 2017년 나온 〈금하에 살다〉라는 책이에요. 냉장고는커녕 석유곤로로 음식을 해먹던 어린 시절, 집주인과 세입자가 오밀조밀 생활했던 풍경부터 얼마 전 40년 만에 금천에서 이사를 하셔야 했던 부모님 이야기까지 제 기억과 추억을 오롯이 담고 있는 가족사인 셈이에요. 세 번째는 학부모모임 10년 활동을 시각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어 혼자 자료를 들춰가며 만들어본 '10년 연대기'예요. 전시를 위해 현수막으로도 만들었는데 길이가 거의 10미터나 돼요. 세세한 것까지 담을 수 없어 굵직한 활동만 추렸는데도 그러네요. 이걸 보면 상단은 학부모모임이 참여하거나 주도했던 활동을, 하단에는 오현애 선생님이 펴낸 마을교과서나 이성호 기자님이 개설한 시민기자교실처럼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주요 이벤트나 이슈를 실어 비교도 할 수 있어요.

금천구민 최진 씨가 선정한 '나의 기록'은

주민들의 생활 모습 담은 영상들

저는 큼직큼직한 사건이나 행사 대신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담은 영상 기록을 소개하고 싶어요. 물론 행사 준비 등 마을활동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포함해서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 속 주민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제 사무실 근처나 집 인근 주차장에서는 할머니 대여섯 분이 항상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할머니들과 나눈 '코시국' 이야기를 영상에 담는 거죠. 평생을 살면서 감염병 때문에 왕래가 끊기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때가 얼마나 될까요. 그 자체가 2020년 현재를 산 주민의 생생한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또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어르신 부부가 있는데, 경사진 버스정류장에서 자주 마주쳐요. 할머니가 자리에 앉을라치면 방석을 깔아주는 등 할아버지가 엄청 자상하게 챙기세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워 두 분의 사연을 들려주실 수 있는지 여쭸는데, 아직까지 허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주민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감동이 좋아 계속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천구민 오현애 씨가 선정한 '나의 기록'은

워크북 <나는야~ 우리동네 척척박사>와 마을교과서 <여기 사는 내가 좋아>

저는 기록활동의 결과물인 출판물 3종을 가져왔어요. 하나가 교육나눔협동조합에서 처음 만든 워크북 〈나는야~ 우리동네 척척박사〉예요. 금천구의 역사부터 호암산성이나 석구상,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8호인 호압사 석불좌상 등의 지역 문화유산과 금천구의 주요 시설을 아우르고 있어요. 다음은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마을교과서 〈여기 사는 내가 좋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학습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해마다 내용을 보완해요. 금천구의 지명부터 자연, 산업, 동별 지도까지 망라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은 금천구의 한 도시재생사업을 안내하는 가이드북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현장에는 처음이지?〉입니다. 기록이 쌓여 이제는 동별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지역의 작가들과 함께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도 독특한데,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어 그림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금천구민 김종임 씨가 선정한 '나의 기록'은

직접 만든 유튜브 '가산마을방송'과 소식지 <금천 향기> 콘텐츠

저는 현재 진행형 기록활동을 가지고 왔어요.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가산마을방송' 콘텐츠와 금천 소식지 〈금천 향기〉입니다. 금천구가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언급했는데, 두 기록 모두 그런 기대를 실천하는 기록활동이자 홍보활동이에요. 주민들이 금천구의 매력과 다양한 자원을 잘 모르기도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흥미로운 마을 소식과 활기 넘치는 공동체활동을 여러 채널로 알리는 일을 계속 할 거 같습니다.

‘개포동 그곳’이 기록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예의

개포주공아파트 나무와 공간 기록 전시한 **이성민 감독**

①

②

2021년 10월 21일 오후 2시가 가까워오는 서울 개포동 개포힐링센터 잔디마당, 이곳은 〈개포동 그곳〉의 ‘나무산책 워크숍’ 현장이다. 청명한 햇살 일렁이는 그곳에는 앞뒤가 흑백인 작은 판넬 모양의 마분지 한 장씩을 앞에 둔 ‘나무산책’ 참가자 10여 명이 아련하기도, 진지하기도 한 얼굴로 저마다 ‘기록’에 몰입하고 있었다.

기록을 놀이처럼!

진행자는 재건축이 한창인 개포주공아파트의 옛 공간과 나무에 대한 기억을 모으는 사진 작업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온 이성민 감독. 영화연출을 전공한 이 감독은 졸업 후 극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벨트Belt2016’에서 사진 부문 최우수 작가로 선정되고 개인전을 가진 이후 사진 작업을 병행해오고 있다. 푸른 마당 곳곳에는 나무액자가 세워져 있다. 개포주공아파트와 시간을 보낸 웅숭깊은 나무, 지난 나무산책 참가자들의 사진이 담겨 있다. 모두 이 감독의 작품과 기록이었다.

“놀이처럼 기록할 수는 없을까 하다가 기획한 방법인데, 산책하면서 인상에 남는 나무를 기억했다가 종이에 남기도록 했어요. 반드시 나무가 있던 장소를 적고, 이름을 붙이도록 했죠. 나머지는 자유롭게 표현하고요. 시나 감상 등의 글을 쓰는 분, 그림도 그리는 분, 나무 주위에 있던 나뭇가지나 잎으로 입체적으로 구성한 분… 참가자 분들은 제가 연출하는 무대에 오른 배우라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결과를 보면 하나같이 정말 근사해요.”

엄마 냄새 나는 나무, 갑돌이가 사랑한 갑순이 나무, 브로치를 단 형제들 나무, 손 내미는 나무…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동안 ‘나무산책’을 통해 기억 속에, 혹은 기록 속에 새로 심겨진 나무들의 이름이다. 이 감독은 강남구청과 강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최로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프로젝트 전시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워크숍과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열어 개포주공아파트 곳곳을 다시 불러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일산 주민인 이 감독은 어떻게 개포주공아파트에 ‘꽂히게 된’ 것일까. 시간은 2014년으로 향한다. 오랜만에 친구 결혼식 때문에 개포동을 찾은 때였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주공아파트에서 산 이 감독은 ‘뭔가 남겨야겠다’는 몽글몽글한 감흥을 느꼈다.

오랜만에 찾은 개포동의 반가움과 공허함

“우연한 방문이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간 가고 싶다거나 그리운 적도 없었고, 포위하듯 들어선 고층 건물은 생소한 풍경이었지만 30년 넘은 동네 슈퍼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니 반갑고 편안했어요. 이 감정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나면 이따금씩 가게 됐고, 그때마다 사진을 남겼죠.”

‘닿지 않는 말’과 ‘여전히 그곳에 없는’ 시리즈 작품들이다. 닿지 않는 시선을 포착하는 혼자만의 작업은 위안이었다. 한데 기억이 담긴 공간, 사라지게 될 공간을 기록하는 이라면 공감할 어쩔 수 없는 공허함도 뒤따랐다. 작품에는 그런 이중적인 심상이 고여 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작업의 의미를 생각하던 이 감독은

⑤

③

④

① 작품사진 ‘소리 없는 봄’, 2019
② ‘2021 개포동 그곳’ 전시 포스터
③ 개포힐링센터 잔디마당에서 진행 중인 나무산책 프로그램
④ ‘나무의 이름’ 캠페인
⑤ 보이는 나무액자는 이성민 감독이 벌목된 개포동 나무로 만든 것이다
⑥ 서울숲 그루터기

⑥

⑦
공원 예정지 나무들
⑧
공원 예정지 전경
⑨
작품사진 '여전히 그곳에 없는', 2016
⑩
이성민 감독

사진작품들을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제 작업을 본 한 소셜미디어에서 스토리텔러 제안을 해왔고, 사진과 짧은 글로 이뤄진 콘텐츠를 게재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모였어요. 흔한 아파트, 흔한 나무인데도 단번에 알아채시고는 댓글에 자신들의 추억을 남기는 거예요. 당시에만 1만5천명 안팎의 분들이 방문했어요.."

반응이 일자 이 감독의 마음에도 파동이 일었다. 재건축이 되기 전에 이들과 개포동을 남겨보면 어떨까, 기획은 개포동 '나무산책'과 '기억산책' 프로젝트로 구체화됐다. 나무산책에서는 사전에 신청을 받은 뒤 참가자들과 걸으며 나무와 관련된 추억을 되살려 기록하고 일회용 카메라에 담았고, 기억산책에서는 참가자 가족이나 친구들의 기억이 담긴 장소를 찾아 사진을 찍고 인터뷰했다.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매월 프로젝트는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보고 느끼고 간직하고 있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 모두가 기록이었다.

'청년 같은' 나무를 보존할 방법을 찾아서

프로젝트는 이 감독에게 또 다른 프로젝트의 길로 '인도'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폐목될 처지인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 나무들을 보존하기 위한 '사투'에 가까운 활동이었다.

"네트워크가 확장되니까 제안과 아이디어가 오갔어요. 그중에 이 멋진 나무들을 벌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관심이 높아 포럼으로 이어지고, 점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하나하나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늘어갔다. 이를 테면 전문가와 산책하며 확인한 나무 상태는 사람에 비하면 '건강한 청년'이 많았고, 구룡산과 대모산을 면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런지 식생도 다양해 39개 수종, 6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들 나무와 더불어 살아온 새와 동물, 곤충은 또 얼마일까.

"나무 한 그루와 공생하는 생명이 정말 많더라고요. 볼수록 진짜 아까운 나무들이었어요. 그 무렵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서 1단지 내 공원 예정지를 알게 됐고, 그곳이 절묘하게 예전에 삼복더위를 피하고 산책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곁에서 자라고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나무를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점점 바람과 요구가 쌓여갔습니다."

이 감독과 의견을 같이한 이들은 강남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해 나무산책 기록물을 보이고, 청원도 했다. 재건축조합에 공문을 보냈더니 긍정적으로 협의해 보겠노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하지만 기대는 자꾸 왜소해졌다.

"2019년 초부터 벌목이 본격화됐고, 조합과 1차 협의 때 포함된 100여 그루는 실측에서 22그루로 줄더니 설계 과정에서는 그마저 도로가 지나는 위치라 나무를 벨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설명회를 열어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거듭 살피고 방법을 찾으려 애를 썼지만 결국 벌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22그루와 주민들이 이별하는 행사를 기획해 허가를 받았어요. 11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가진 행사에서 나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기록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방식 중 하나

하지만 개포주공아파트 나무와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시한부 시간을 살다가 마침내 베어진 나무가 제재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급보'를 받은 이 감독은 한걸음에 달려가 나무의 여정을 기록했다.

이후 이식 자문을 구하면서 안면을 튼 (사)그린트러스트에서 겨울정원을 조성할 때 곤충호텔 등에 사용할 나무를 구하고 있어 제재소에 있던 나무를 연계했다. 이 감독도 일부를 구입해 스탠딩 나무액자로 만들었다. 또 재건축 현장을 찾아 그루터기 하나를 청했다. 나무가 얼마나 건강하고 우람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 정도는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80cm가 넘는 그루터기라 보관이 문제였다. 나무산책에 참여했던 한 작가님이 소개해준 지인이 보관해주겠노라 나섰고, 남양주에서 1년을 보낸 그루터기는 지난해 서울숲으로 옮겨졌다. '개포동 그곳' 프로젝트 기록물, 촬영한 영상물 등과 함께 개포동 나무가 어떻게 서울숲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그루터기까지 전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감독은 나무액자로 나무들과 그루터기 사연을 소개했다. 그리고 전시회 종료 하루 전 서울숲에서 보존을 약속하면서 이 우여곡절 많은 그루터기는 정착했다.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개포동 나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 스스로 살아 움직이고 확장되고 계속 새로운 가능성으로 연결된 거 같아요. 이 과정에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기억을 나누고 기록으로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무와 새,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주제의식까지 교감할 수 있었거든요."

개포동 활동이 알려지면서 서울기록원의 '기록의 발현 : 주공아파트 주민기록' 전시에도 참여한 이 감독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록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임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전시회 관람객 중 새 입주자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개포동 나무 이야기를 안내하면서 끝에 항상 '앞으로 40~50년 후 또 재건축을 하게 될 거다, 사람뿐 아니라 생태계까지 잘 살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남기고 기억하고 발전시킬 건지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록을 하다보면 현재는 물론 미래를 더 잘사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니까요. 이런 인식은 서울기록원 개원 전시에서 제 작업이 아카이빙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강해졌어요. 예술은 공감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자 결과예요. 예술가로서 계속 상상을 시각화하며 공감과 가능성을 기획해 가겠습니다."

다시 개포힐링센터 잔디마당이다. 나무액자에 가려 초반에는 잘 보이지 않던 노란색 깃발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공원 경계를 측량하면서 22그루 나무의 삶과 죽음을 나눌 당시 사용된 깃발로, 이 감독이 빠뜨리지 않고 '수집'했다. 이 감독은 이 노란색 깃발이 펄럭일 때면 다시 모여 개포동 나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오프라인 기록 행사 열리다

김신지 작가, 김시덕 작가 등
전문가 강연 및 시민기록활동 사례 공유

① 2021 서울기록페어 포스터

2021년 11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제2회 서울기록페어-슬기로운 기록생활'이 개최됐다. 서울기록원 2층 특별전시실과 3층 교육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진행된 제2회 서울기록페어는 지역 아카이브인 서울기록원이 시민들의 기록활동을 지지하고 조력하며 함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시민기록축제. 2021년에는 특히 전 세계를 감염병 재난 공포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지침에 근거, 2년 만에 소규모지만 처음으로 열린 오프라인 행사라는 점에서 남다른 주목을 받았다.

② 홍보 현수막을 통해 2021 서울기록페어를 알리고 있다

③ 네트워크 세션에서 (사)은평상상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위현 상임이사

④ 네트워크 세션에서 RTV의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김현익 사무국장

기록페어의 지향은
시민들의 기록활동을 조력하는 플랫폼

"2016년 서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다원적이고 총체적인 기록화를 통해 서울을 재현하고자 하는 서울기록화사업을 기획하면서 시민기록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시민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가 아니라 의도적인 접근이었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서울기록페어가 시민들의 다양한 기록활동을 조력하는 플랫폼이 되어 재미있는 경험을 만들고 나눌 수 있게 하는데 집중해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온오프라인 기록페어가 시민들께서 기록활동을 실현하고 즐기는 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기록원 조영삼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기록페어 첫날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시민들과 기록 이야기에 첫 주자로 나선 이는 일상 속 생생한 기록습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의 저자 김신지 작가. 김 작가는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기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비롯해 5년 일기, 감정일기, 문장서랍, 영감노트 같은 자신만의 기록 방법과 테마를 찾는 방법 등을 전수했다.

이어진 '네트워크 세션'에서는 서울 은평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분야별 시민협력 플랫폼인 (사)은평상상의 위현 상임이사와 TV 등의 미디어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지향하는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활동을 하고 있는 RTV 김현익 사무국장이 기관의 기록활동을 발표했다.

서울기록화사업 다큐멘터리 상영…
서울기록원 시설 견학도 진행

'기록관리 A to Z'를 주제로 한 시민기록교육으로 시작된 서울기록페어 둘째날은 '걸어서 기록한 서울'을 주제로 김시덕 작가가 이어갔다. 문헌학자이자 기록전문가인 김 작가는 서울의 곳곳을 걸으며 발견한 머릿돌, 비석, 벽보, 간판, 폰트 등 다섯 키워드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고 해석해온 그동안의 활동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글자를 담고 있는 돌이나 나무, 종이 같은 매체들은 텍스트뿐 아니라 물질적인 성격, 그러니까 무게와 두께, 글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도 제각각 시대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하면 겉으로 드러난 서울뿐 아니라 다양한 결의 서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네트워크 세션'에서는 이지현 씨가 주거공동체인 '오늘공동체'의 기록활동을, 권순원 활동가가 수제 맥주의 주종과 특징, 양조장 등 '맥주덕후'로서 해오고 있는 기록활동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성벽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을 비롯해 '오늘공동체-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코로나19 재난과 문화예술가' 등 서울기록화사업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서울기록페어는 서울기록원 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⑤ 수제 맥주 관련 기록활동을 발표하고 있는 권순원 활동가

⑥ 오늘공동체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이지현 씨

⑦ 제2회 서울기록페어 문을 열고 있는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2021

Seoul Archiving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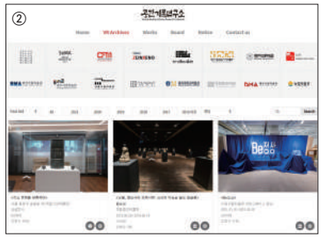
Part 3

서울, 기록으로 즐기다

VR기록, 입체적이고 미래적인!

VR기록플랫폼 구상하는
‘파노시스’ 문현성 대표

①


②

신체, 감각 기관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미디어’라면, ‘기록’은 미디어를 이용해 인간의 기억을 확장하는 행위다. 동굴 속 벽화나 파피루스에 새겨진 상형문자부터 종이기록 시대를 지나, 지금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시청각 매체가 중요한 기록매체가 되었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기록매체의 도입을 불러오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현재 상태에 하나의 기술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환경 전체를 바꾼다. 종이기록이 등장한 지 100년도 안 된 전자기록에 왕좌를 물려주면서 보존을 위해서는 종이로 생산된 기록마저 전자적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지금 사진이나 영상기록은 VR기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특정 상황과 시점을 박제하여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은 문자 기반의 기록보다 재현의 측면에서 더 유리한 기록매체이다. 하지만 사진은 특정 장면만을 줌인Zoom in하여 담는다는 점에서 큰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록과 기록되지 않은 것 사이의 공백을 줄이는 것, 그래서 최대한 복합적 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기록기술의 궁극적 지향이다.

VR기록은 복합적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최신 기술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미래적이다. VR전문업체 ‘파노시스PANOSIS’의 문현성 대표는 그 미래성에 주목해 VR기록을 시작했다.

VR과 기록이 만났을 때

“VR기록은 고성능 카메라로 동서남북에 하늘까지 다섯 방향을 촬영해 개별 이미지를 연결하고 보정함으로써 360°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VR도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쪽 일을 하다 보니 ‘사진기록은 있는데 왜 VR은 기록자료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VR이 기록매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가상현실이라고 해석되는 VRVirtual Reality은 가상의 시공간을 현실처럼 구현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VR기록은 현실 공간을 가상의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 담아 훨씬 사실성 높은 재현이 가능하고, 시공간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기록에 유용하다. 그래서 문 대표의 VR기록은 특정 공간을 특정 시간에 묶어놓는 ‘공간기록’이며, 그중에서도 ‘전시기록’이 중심이다.

“VR쪽 일을 한 지 15년차인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건설사의 모델하우스를 파노라마 VR로 구현해서 모델하우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분양하면 끝이거든요. 오랫동안 남는 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 수요가 좀 있었는데, 이게 VR기록으로 적합하고 오래 보존했을 때 가치 있겠다 싶었지요.”

공간을 기록한다는 것

문 대표는 그렇게 10년 전부터 조금씩 해오던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기록을 당장의 수요나 수익에 상관없이 꾸준히 모아 하나의 플랫폼에 담았다. 2020년 오픈한 파노시스의 부설기관인 ‘공간기록연구소www.archive360.kr’다. VR 아카이브 플랫폼을 지향하는 공간기록연구소에서는 2007년 노원구청 1, 2층 로비에서 열렸던 ‘2007년 한 · 중 · 일 현대미술제’ 전시부터 2021년 10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전시까지 총 657개를 VR기록으로 볼 수 있다. 해마다 발달해온 VR기술은 해상도나 만들어진 모양새는 차이가 나지만 공간기록연구소의 모든 기록은 ‘그날의 그 상황으로’ 기록 이용자를 데려다놓는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

“연구소에 있는 VR들은 제가 15년 동안 일하면서 제작한 미술전시 VR기록들이에요. 의뢰를 받을 때 발주처는 온라인 전시 측면에서만 발주하고, 보는 분들은 전시를 즐기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납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연구소 서버에 올려 서비스했어요. 당장은 VR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이 없지만 기록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빛을 볼 때가 오리라 믿거든요. VR기록은 전시작품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전시장 전체를 볼 수 있기에

③

④

① VR기록 현장
② 공간기록연구소 홈페이지
③ 문현성 대표
④ 파노시스 사무실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들
⑤ VR기록 미술관 현장

⑤

다음 전시를 준비하거나 지난 전시를 평가할 때 더 좋은 전시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5년, 10년이 지난 후 어떤 전시관에서 과거에 무슨 전시를 했는지 보고 싶을 때 그 전시를 그대로 볼 수도 있고요."

하나의 특정 미술작품만 보고자 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같은 작품이라도 전시된 공간과 순서, 다른 작품들과 관계 속에 놓이면 새로운 이야기를 품는다. 그래서 공간기록연구소는 전시를 중심으로 한 'VR Archives'와 개별 작품을 담은 'Works' 코너가 나뉘어 있다. 'VR Archives'의 VR기록들이 전시별로 분류돼 전시장부터 모든 전시를 둘러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면, 'Works'는 작품별로 분류해 하나씩 개요를 담아 올렸다.

공간기록연구소만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서 발현되는데, Works 코너의 작품을 클릭하면 보는 이의 공간으로 작품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작품이 있는 곳으로 보는 이를 데려간다. 연구소 이름처럼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기록에서는 공간 자체도 기록이다.

'가늘고 길게' 전략

'VR Archives'가 의뢰받은 VR 전시기록을 서비스하는 공간이라면 'Works'는 온전히 파노시스 문현성 대표의 개인적인 욕심이 담긴 공간이다. 문 대표에게 VR기록은 '당장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의미와 가치가 있는 VR'이다. VR기록에 대한 인식이 낮고, 수요가 많지 않으며,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으로써 성장가능성이 낮은 분야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처럼 '가늘고 길게' VR기록의 길을 걷는 것은 기록이 가진 매력과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꼭 필요할 때가 오리라는 바람과 기대 때문이다.

"VR기술로 화려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효과도 5년이 지나면 촌스러워지죠. 하지만 VR이 기록과 만나면 다른 가치가 생겨나요. 몇 년 전 그 전시공간으로 바로 데려가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산이 되는 시장이라는 게 매력적이에요. 공간기록연구소 수익은 걸음마 단계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VR기록이 빛을 볼 때가 있겠지 하는데, 한 20년 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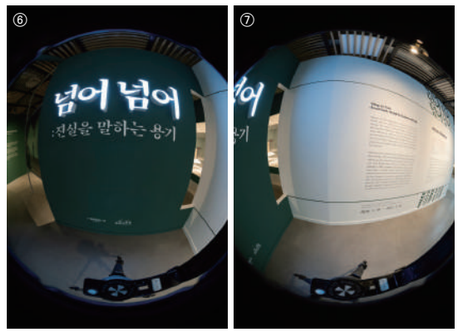
공간기록연구소의 VR기록들은 공간의 역사, 전시의 과정, 작품의 이력들을 모두 보여준다. 코로나19 영향이 있기 전인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전시'를 미술관 전시로 한정해 보면 총 2911회에, 참여한 작가는 2만8987명[2020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여기에 일반 화랑과 아트페어 등을 포함하면 미술전시는 한 해 약 8천 회에 이른다. 다양한 작품들을 조합하고 배치함으로써 서사를 만들어내는 전시는 그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한 권의 책과 같다. 한 해에 약 8천 권의 책이 작가와 조력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가 며칠 만에 사그라지는 셈이다. 그렇게 사라진 전시는 다시 볼 수 없다. 기록되기 전에는.

'VR소셜플랫폼'을 구상하다

문 대표는 VR기록이 전시를 넘어 모든 기록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활용될 것이라 예상한다.

⑥⑦⑧⑨⑩
순서대로 VR 촬영
정면, 오른쪽, 왼쪽, 뒤쪽, 수직 90도 장면

⑪
북극 VR기록 현장
⑫
독도 VR기록 현장의 드론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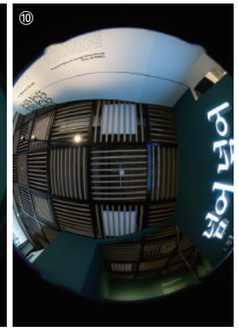


⑥

⑦

⑧

⑨


⑩

텍스트로 구현된 구술기록이 구술자의 언어에 치중해 기록한다면 VR로 구현된 구술기록은 구술자가 있는 공간, 구술자가 말하는 태도와 짓는 표정, 심지어 외모까지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메시지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충북 증평군과 기록관 전시VR과 별관 건축 VR을 진행하고 있는데 2년에 걸쳐 기존에 있던 건물, 허물어진 후,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 등을 매달 항공촬영으로 360°로 담았어요. 단순한 건축과정을 넘어 그날의 날씨, 주변 환경의 변화, 하다못해 군청 주차장 주차선이 바뀌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아 제공해요. 사실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배경지식을 제공하거나 증거로서도 기능할 수 있죠."

이 때문에 문 대표는 VR기록이 활성화되면 다른 기록들을 생산공간 안에서 구현하게 해 기록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VR기록은 공간을 기록하다보니 플랫폼 개념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기록들을 배치시켜 보여줌으로써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죠."

20년 후를 내다보며 VR기록의 길을 만들어가는 문 대표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을 또 하나 꿈꾸고 있다. 다음 단계로 준비 중인 '공간기록사람들'이다. VR카메라로 촬영한 사람들이 이미지를 올리면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VR소셜플랫폼이다.

"최근 360° 카메라를 활용해 촬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플레이어는 없어요. VR로 기록하면 그 장소와 사람, 그날의 분위기까지 그대로 담을 수 있는데 서랍 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업로드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공간기록사람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더욱 '돈'이 안 되겠지만 VR기록들을 유튜브처럼 누구나 쉽게 올리고 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⑪

⑫

기록에 상상 버무린 우리 역사게임 즐겨 볼까요

① 코스닷츠 김회민 대표와 정재령 대표

COSDOTS

② 제주 4·3 사건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역사게임 〈언폴디드: 동백이야기〉

인디게임 개발 스튜디오 ‘코스닷츠’ 김회민·정재령 대표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은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의 사진을 부르는 명칭이다.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고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이라 말했다. 광대한 우주 속에 먼지처럼 떠 있는 이 하나의 점에 주목한 젊은이들, 김회민과 정재령 대표가 있다. 2017년 한국 역사와 사회적 가치를 담은 게임을 만들고 싶었던 두 청년은 의기투합했고 한국사 전문 인디게임 스튜디오가 탄생했다. 코스모스 속 작은 점이지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은 지구처럼 빛나고픈 ‘코스닷츠COSTDOTS’다.

게임으로 만나는 제주 4·3 사건 <언폴디드: 동백이야기>

공대 출신에다 ‘역사덕후’인 김회민 대표가 기획과 프로그래밍을, 미대 출신 정재령 대표가 아트와 디자인을 담당한다. 이들의 첫 작품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어드벤처 게임 ‘언폴디드 시리즈’이다. 그중 〈언폴디드: 동백이야기〉는 〈언폴디드: 프롤로그〉 〈언폴디드: 참극〉에 이은 결정판이다. 2021년 3월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해 글로벌 온라인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 정식 출시했다. 대표작의 메인 테마를 ‘제주 4·3사건’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8년 어느 날 김 대표는 우연히 TV에서 제주 4·3사건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을 접했다. 2014년 제주 4·3사건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다섯 번째 행사였다. 김 대표는 문득 궁금했다. ‘제주 4·3 사건이 뭐지?’

“며칠 후 대형서점에 갔다가 제주 출신 현기영 작가의 중편소설 〈순이 삼촌〉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표지에 그려진 돌담이 운명처럼 눈에 들어왔어요. 돌담은 제주를 연상시켰고 얼마 전 봤던 4·3사건 추념식이 떠올라 책을 샀는데, 정말 단숨에 읽었습니다. 상세히 묘사돼 있는 제주 4·3사건의 참상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을 말한다. 서북청년단으로 대표되는 폭력집단이 이승만 정권과 미국 정부의 묵인 아래 초토화 작전을 벌여 많은 주민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펴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주도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만9285동이 소각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3년 최초로 국가폭력을 인정하며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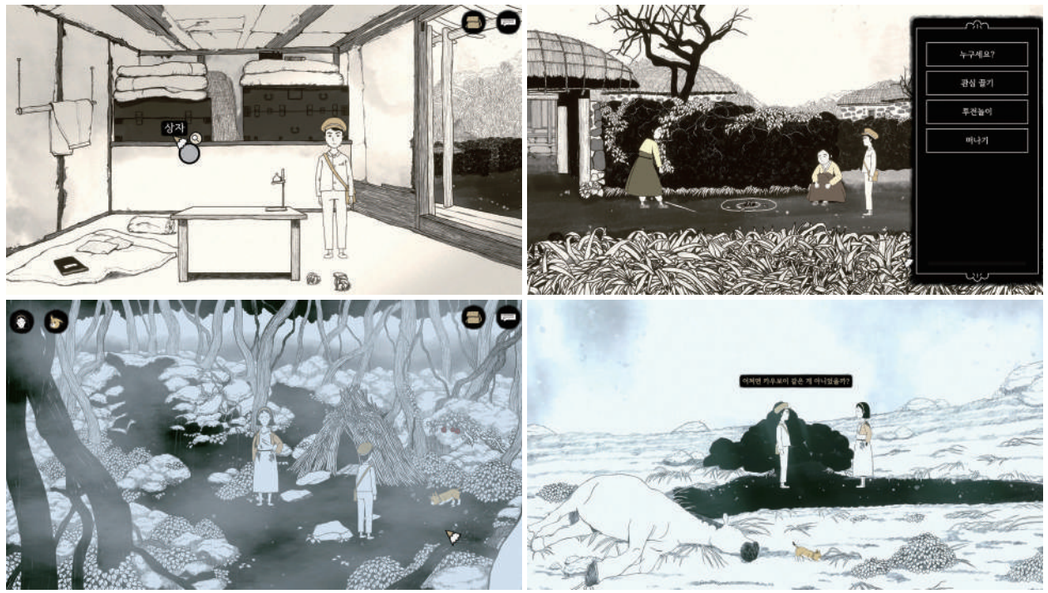
기록과 증언에 바탕을 둔 역사게임

“2017년에 대학 과제로 게임을 만든 적이 있어요. 2016년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사건이 계속 마음에 남아 노동문제를 다룬 게임을 만들었는데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어요. 이때 사회적 가치를 담은 게임을 만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문과생이던 김 대표가 공대에 진학한 배경이었다. 대학 때는 게임 개발 동아리 회장도 지낸 김 대표는 ‘한국사 게임’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다. 케이팝과 아이돌, 드라마가 세계로 진출하는 시대, 한국사 게임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제주도 특유의 현무암 토양이 자아내는 풍경과 독특한 문화를 흑백풍의 ‘핸드 드로잉’으로 그려내고, 194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에 걸맞은

③



③ 〈언폴디드: 동백이야기〉 장면들

④

④
코스닷츠가 허술한 도사 '전우치'와 영국 탐정 '셜록 홈즈'의 캐릭터를 조합해 개발하고 있는 게임 〈청구야담: 팔도견문록〉
⑤
회의 중인 코스닷츠 두 대표

그림체를 찾기 위해 고심했어요. 짜임새 높은 내러티브와 퍼즐 디자인, 매력적인 캐릭터들, 시선을 끄는 2D 그래픽 아트 게임을 구현했고요. 마을이 불타는 장면, 무장대의 근거지였던 관음사 풍경, 토벌대를 피해 동굴에서 지내는 주민들의 모습 등을 역사 고증을 통해 실제와 가깝게 묘사했죠."

정 대표의 말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 공식 기록의 도움이 컸다. 나아가 김 대표와 정 대표는 사건을 정확하게 고증하기 위해 유관단체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에 자문을 구했고, 유가족들의 증언을 들었다. 2019년 말에는 제주도 사적지를 견학하고 주민들을 만나 경험담을 들었다. 인터넷 자료 조사와 비대면 조사를 통해 자료도 모았다.

첫 도전 그리고 좌절

그렇게 탄생한 〈언폴디드: 동백이야기〉. 제주 4·3 사건이 절정으로 치닫던 1948년 11월의 이야기를 재현한 어드벤처 게임은 마우스로 캐릭터를 움직여 얻은 힌트를 활용해 퍼즐을 풀면서 스토리를 진행한다. 한국어 외 5개 언어를 지원했다.

게임이 출시되자 철저한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한 게임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DDP 독립게임어워드' 스토리텔링상,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GIGDC 동상을 받았다.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잘 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고 제작비의 10분의 1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실패했다.

"민간인 학살의 슬픈 역사를 테마로 게임을 만드는 것이 모험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의도가 숭고하고 열심히 만들었으니 사랑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무관심이었다. 세계의 게이머들은 한국의 아픈 근현대사에 관심이 없었다. 현실은 냉정했고 패배는 뼈아팠다. '역사를 배경에 깔면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은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작인 〈언폴디드: 동백이야기〉보다 대중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았다. 판단과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했다.

비디오게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게이머 계층도 남성과 여성, 코어와 캐주얼, 액션과 내러티브 지향 등으로 계속 분화했다. 액션보다 스토리에 집중해온 코스닷츠는 자연스레 '여성향'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향 게임의 경쟁력은 캐릭터 설정과 디자인이다. 한국사에서 가장 재미있는 캐릭터이자 잠재적 팬들까지 매력을 느낄 캐릭터로 '전우치'를 떠올렸다. 유유자적 조선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도사. 도술을 부려 탐관오리로부터 백성을 돕는 선한 모습과 가끔은 스스로 자제하지 못해 괴물의 꾐에 넘어가는 허술한 모습까지 다면적인 모습이 매력적이다. 강동원 배우가 주연한 영화 〈전우치〉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파이프 담배 하면 떠오르는 탐정과 전우치를 합친다면?

〈청구야담: 팔도견문록〉, 전우치와 셜록 홈즈가 컬래버한다면!

이러한 구상을 '서브컬처'에 조예가 깊은 팀원들과 나누었고, 이들의 솜씨가 더해져 주인공 콤비가 완성됐다 .주인공 '정 도사'는 전우치라는 뼈대에 셜록 홈즈 캐릭터를 가미했다. 도사이자 탐정인 정 도사가 조선 팔도를 여행하며 괴물이 벌여 놓은 사건을 추리로 해결하는 이야기다. 셜록 홈즈를 본떴으니 조수 왓슨 역할도 필요했다. '조 군관'은 그렇게 탄생했다.

캐릭터와 게임 기획을 얼추 완성한 후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홍보를 시작했다. 많은 트위터 유저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냈고, 콘셉트대로 크라우드펀딩 텀블벅에 도전했다. 리워드 구조부터 펀딩 소개용 그림, 데모까지 빠르게 진행했다. 〈청구야담: 팔도견문록〉은 2021년 5월 11일 론칭, 50일간의 펀딩 끝에 달성률 550%, 후원액 5500만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어느 정도 상업적 가능성 확인 뒤의 과제는 철저한 고증이었다. 조선중기의 복식, 검법, 무예, 풍속 등을 연구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사서史書와 시군지市郡紙도 꼼꼼히 살폈다. 두 대표는 이 작품의 성공에 "목숨 걸었다"고 비장한 심경을 전한다.

"저는 정말 역사를 좋아합니다. 프랑스의 개발사가 1차 세계대전 참상을 배경으로 한 게임 〈발리언트 하츠: 더 그레이트 워Valiant Hearts: The Great War〉를 만들고, 일본 게임 회사가 전국시대의 치열한 대립을 다룬 대전략 게임 〈신장의 야망 시리즈〉를 제작하는 것처럼 우리 역사로 세계적인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

"저는 정말 역사를 좋아합니다. 프랑스의 개발사가 1차 세계대전 참상을 배경으로 한 게임 <발리언트 하츠: 더 그레이트 워>를 만들고, 일본 게임 회사가 전국시대의 치열한 대립을 다룬 대전략 게임 <신장의 야망 시리즈>를 제작하는 것처럼 우리 역사로 세계적인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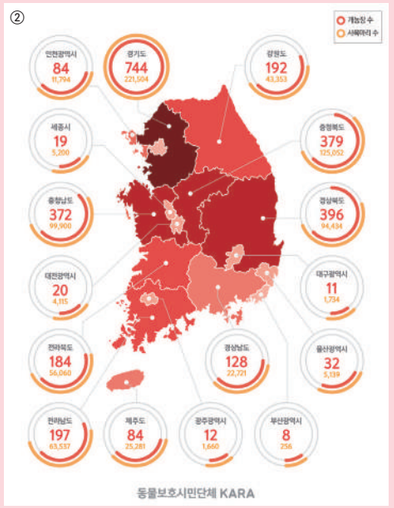
⑤

동물 지식 큐레이팅부터 사라져가는 마을기억까지, 디지털에는 별별 기록저장소가 있다!

디지털아카이브 '카라 아카이브'와 '한성대 성곽마을 아카이빙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의 강점은 아카이브와 만나 또 하나의 창의적인 혁신을 이룬다. 디지털 세상에서 구축된 거대한 분야별 콘텐츠 저장고 '디지털 아카이브'가 그 결과물이다.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고 찾아보고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까지 높인 디지털 아카이브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 중 이번 '디지털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카라 아카이브'와 '한성대 성곽마을 아카이빙'을 소개한다.
오픈소스를 활용한 공통점이 있는 두 디지털 아카이브는 다양한 정보와 전시 공간으로 시민 여러분을 초대한다.

①



③

④

⑤

① 카라 아카이브 홈페이지
②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아카이브 지도
③ 국내 첫 동물보호 매거진 〈숨〉
④ 개농장 폐업 개 구조활동
⑤ 카라 활동가와 강아지들 단체 사진

① 카라 아카이브

중세 시대에는 동물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았다.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동물은 인간의 재판과정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동물을 다스릴 주도권을 인간에게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 '모든 동물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계동물권리선언'이 공포되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동물들 역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 구성원의 일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지금, '카라 아카이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물권 관련 자료를 정리했다.

동물권에 대한 집단적 성찰 담은 디지털 공간

카라 아카이브는 동물권 운동에 대한 지식 큐레이팅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동물권에 대한 집단적 성찰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공간으로 2년간의 준비 끝에 2019년에 개장했다. 카라가 생산하고 수집한 기록물은 8만 여점에 이른다. 2002년 '아름품'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과 정책 제안, 교육, 캠페인 과정을 보여주는 정보들이다.
아카이브는 주제별, 연표별, 유형별, 캠페인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2002년 설립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보호단체로 자라난 카라가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활동들을 볼 수 있다. 시대의 흐름 속에 굵직한 활동이 무엇이었고, 그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라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동물보호법 판례평석을 출간하는 과정을 모아 온 160여건의 동물 관련 사건 판결문이 공개돼 있다. 이 밖에 동물, 동물보호, 동물권을 주제로 선별한 동물영화와 동물도서를 검색할 수 있고, 카라가 발간한 국내 첫 동물보호 매거진 〈숨〉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카라의 활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온 이효리, 조수미, 제인 구달 등 유명인들의 활동 모습도 담겨 있다.

전시로 돌아보는 개 식용 사회적 변천사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왔고 현재도 논쟁 중인 '개 식용' 문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개를 반려동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개 식용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 카라 아카이브는 그동안 국내 개 식용 종식 운동이 거쳐 온 역사와 의미를 조명하는 온라인 전시를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있다.
시대별 주요 구호의 의미를 짚어본 〈구호로 살펴본 개 식용 철폐 운동사〉, 시대별 뉴스 키워드를 추출한 〈뉴스 키워드로 본 개 식용〉 등이 대표적이다. 전시를 살펴보면 2002년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 이슈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암묵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개고기 조리법과 유명 보신탕집을 소개하는 언론의 뉴스 보도가 드물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개 식용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카라 아카이브는 신고로 파악된 '개농장 아카이브 지도'를 만들었다. 집계된 규모만 해도 전국적으로 2861곳. 카라는 지속적인 개농장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누락된 농장을 발견할 경우 시민들 스스로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제보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카라 아카이브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카이브로, 누구든지 참여 페이지를 통해 쉽게 자료와 사진을 기증할 수 있도록 설계해 동물운동의 기록 저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카라를 통해 동물을 입양하거나 행사 참여 사진과 사연을 기증하는 방법도 있다.
카라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통해 기록 기증에 참여해보시길.

우연히 개들이 사육되고 있는 곳을 지나친 적이 있다면?

내 손으로 들어내자, 불법 개농장!

현재 카라 아카이브 개농장 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개농장을 발견했을 때, '개농장 감시 참여하기'를 통해 불법 개농장을 제보해보자. 우선 카라 아카이브에서 내가 발견한 개농장의 정확한 주소를 검색해본다. 검색 결과 해당 개농장이 없다면 아카이브 참여 페이지에 개농장 주소를 제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누락된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끌어내 내 손으로 불법 개농장을 폐쇄시킬 수 있다.
https://archive.ekara.org/contribution/contribute

그 시절 우리가 오가던 성곽마을의 기억
② 한성대 성곽마을 아카이빙

오늘의 수도 서울, 그러니까 한양을 지키기 위한 경계인 한양도성 성곽을 따라 서민들의 투박한 삶의 애환이 묻어나는 곳이 있다. 한성대 성곽마을이다. 한양도성에 인접한 9개 권역 성곽마을 중 하나인 한성대 성곽마을은 성북구 삼선동 일대의 오래된 마을이다. 한양도성 혜화문 밖, 낙산 기슭에 있는 이 성곽마을엔 시야를 가리는 빌딩 없이 각양각색의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1960년대와 1970년대 산업화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도심에 진입할 수 없어 산등성이에 거처를 택한 사람들의 흔적과 추억이 깃든 이 오래된 성곽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한성대 학생들이 기록했다. 이들의 발걸음을 디지털로 담은 '한성대 성곽마을 아카이빙'을 만나보자.

해마다 신규 아카이빙 프로젝트 진행

성곽마을 아카이빙은 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캠퍼스를 오가며 지역에 얽힌 역사를 함께 찾아보고 성곽마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담긴 기록을 모아 2019년에 구축했다. 전공 수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현재 학생들이 아카이브화한 사진기록만 2천장이 넘는다. 홈페이지 대문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포토월 속 사진들 하나하나가 마을 곳곳의 기억과 추억을 상기시킨다. 누군가는 골목이나 계단을, 누군가는 대문과 창문, 담벼락을, 또 누군가는 우편함과 지붕, 광고와 공지문을 기록했다. 마을 구석구석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진, 삼선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영상, 성곽마을 곳곳에서 채집한 소리들이 흥미를 돋운다.

2019년 성곽마을 아카이빙을 시작으로 이듬해엔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한성마을(삼선 5구역)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성곽마을(2019), 한성마을(2020), 성북천(2021), 돈암·동선동 종교시설(2021) 등 컬렉션 검색으로 매년 진행되는 신규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엔 한성대 학생들이라면 추억 한 자락쯤 가지고 있을 성북천 주변과 마을 구성원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찾던 종교활동의 흔적을 기록했다.

한성대 학생들이 포착한 성곽마을의 소소한 일상

성곽마을 아카이빙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다양한 유형의 전시 콘텐츠들이다. 사진뿐 아니라 필드레코딩을 통해 채집한 성곽마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집수리하는 소리, 이불 터는 소리,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만화영화 보는 소리…. 작고 사소한 소리들은 쉬이 들리지 않기에 귀를 쫑긋 세우게 한다. 이렇게 채집된 소리들은 눈감고도 정겨운 마을의 공기와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돈암·동선동(2021) 전시에선 타임라인 툴을 이용해 종교시설에 관한 뉴스와 사진을 표현하는 작업을 시도했고, 동선동 재개발지역을 필드레코딩한 사진기록을 지도로 표현했다. 지도를 클릭하면서 변화하는 마을 모습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 약 1500개에 달하는 태그를 눌러보며 원하는 사진 기록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3년에 걸쳐 아카이빙에 참여한 학생들의 후기담도 만나볼 수 있다. 아카이브를 구성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그들의 소감을 읽어보는 것도 아카이브의 쏠쏠한 재미 중 하나다. 학생들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잊혔을지 모를 마을의 아름다움을 한성대 성곽마을 아카이빙이 오롯이 전하고 있다.

⑧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구술을 담다

삼선 5구역 주민 인터뷰

삼선 5구역은 2019년 12월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됐고 현재 철거를 기다리고 있다. 삼선 5구역 노포의 주인들을 인터뷰하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신 할머니와 삼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다. 34년간의 영업을 마치는 한아름분식 사장님, 이웃끼리 수저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40년을 거주한 주민… 한 공간을 지킨 주민들의 인터뷰를 듣다보면 마음이 먹먹해진다.

https://hsarchives.org/archive/multi-collections/multi-collections/show/id/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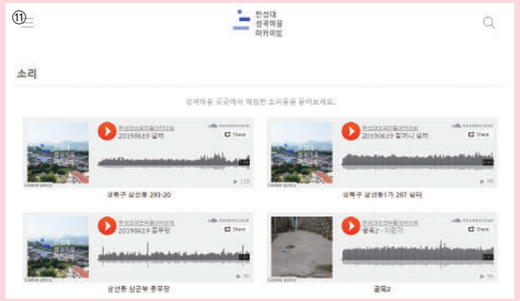
⑥

⑦

⑨

⑩

⑪



⑥ 한성대 성곽마을 아카이빙

⑦ 주민들끼리 하고 싶은 말을 적은 포스트잇 담벼락

⑧ 성곽길 따라 펼쳐진 한성대 성곽마을 전경

⑨ 성곽마을의 담벼락과 골목길

⑩ 한성대 성곽마을 아카이빙 홈페이지와 포토월

⑪ 성곽마을에서 채집한 소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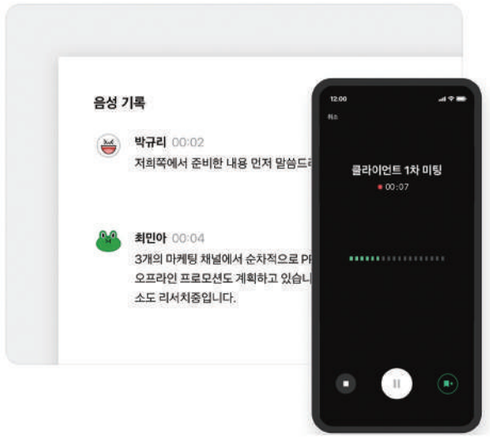
‘기록잘러’ 되는 법

기록 효율 높이는 **기록 도구 가이드**

언택트가 일상이 된 시대, 기록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코시국’ 여파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도구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노트, 문서 등 여러 기록 도구를 하나의 작업 공간에 통합한 기록툴, 녹음 내용을 텍스트로 단번에 바꿔주는 서비스 등 빠르고 간편하게 기록 완성도를 높이는 기록테크, 도구들을 모았다.

네이버 클로바노트

고달픈 초벌 녹취 수고 덜어주는 음성기록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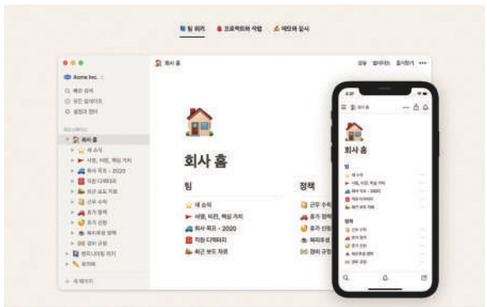
구술 증언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기록하고 싶다면 음성기록 앱인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추천한다. 클로바노트는 녹음된 내용은 물론 회의나 대화 등을 실시간 텍스트로 바꿔주는 서비스다. 회의록, 인터뷰, 구술 증언, 상담 기록처럼 중요한 기록 현장의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해준다. 파일의 상태나 현장 상황에 따라 정확성은 차이가 있지만 일일이 받아 적는 초벌 녹취의 수고로움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 미덕이다. 그리고 화자인식 기술로 말한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해 대화 내용을 구분해주는 것도 기특하다. 녹음하면서 포스트잇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북마크 설정을 할 수 있다. 녹음을 마치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찾을 수 있는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다. 지루하고 고달픈 초벌 녹취의 고통을 덜고 싶은 이들에겐 클로바노트가 ‘신의 한 수’일 것이다.

노션Notion

간결한 디자인과 직관적 사용감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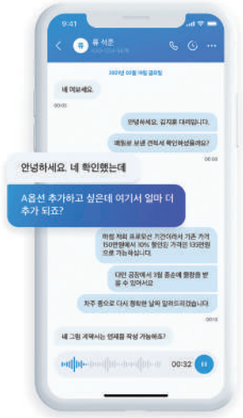
일 혹은 문제의 정의와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 필요한 역할을 척척 해내는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들 사이에서 ‘생산성 도구 끝판왕’으로 이미 잘 알려진 ‘노션’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문서 작성 및 공유 애플리케이션이다. 잘나가는 IT스타트업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협업툴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에 유용한 도구로 부상해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노션의 강점은 간결한 디자인과 직관성이다. 노션 하나면 원페이지 안에서 메모와 노트 필기, 일정, 투두리스트, 프로젝트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실제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이들 중에는 노션을 통해 인터 업무, 대학 노트 필기, 일정과 아이디어 기록 등 일상의 거의 모든 기록 행위를 하는 이들이 많다. 사용법이 간편하다 보니 기업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노션을 활용하는 회사들도 상당하다. 노션 한국 사용자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미 활발하게 운영 중이고, 유튜브에선 활용법 콘텐츠도 다양하니 노션으로 일상 속 종합적인 기록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스위치

차별화되는 나만의 전화 업무 도우미



스위치는 클로바노트와 유사한 AI 녹음앱이다. 차이라면 음성 통화 내용을 문자로 바꿔주는 데 특화돼 있다. 이 때문에 그간 통화녹음 기능이 없어 불편함을 겪어온 아이폰 유저들에게 큰 환영을 받은 애플리케이션이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대화를 메신저앱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 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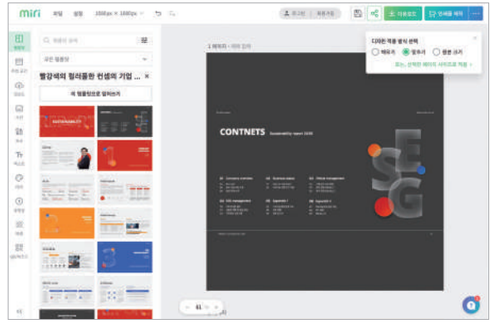
스위치 앱을 통해 통화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카톡 대화처럼 문자로 기록되고, 기록 내용을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통화 상대와의 혼선을 막고 내용 누락의 우려를 덜 수 있어 업무상 꼼꼼한 기록이 중요할 때 유용하다. 메시지 말풍선을 선택하거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특정 구간 음성만 다시 들을 수도 있다. SNS처럼 태그를 달아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록을 정리해둘 수도 있어 차별화되는 나만의 전화 업무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겠다.

미리캔버스

작업물 날릴 걱정 없는 디자인 템플릿 툴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미리캔버스로 만든 이미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미리캔버스는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하는 툴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적 감각이 없는 비전문가도 썸네일이나 카드뉴스를 쉽고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원하는 템플릿을 고른 다음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금만 수정하면 3분 만에 디자인할 수 있을 정도다. 모든 템플릿과 디자인 요소를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리캔버스의 최고 매력이다.

‘기록툴’로 미리캔버스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10초마다 작업한 디자인을 자동 저장해주는 기능 때문이다. 에디터 내 ‘작업내역’이라는 메뉴에 기록되는데, 해당 디자인에 편집한 날짜 및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으로 복원도 가능하다. 이 자동 저장 기능 덕분에 작업물을 날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캔버스에선 예쁜 메모지를 만들어 기록할 수도, 내가 만든 디자인 시안으로 바로 인쇄도 가능하다.



아카이브북, 유혹하다

기획 돋보이는 <호빵책 : 디 아카이브> & <툴즈 Vol.1 비누>

'빨간집' 대표
배은희

기록하고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기록을 대중과 쉽게 공유하고, 오래도록 보존하기에 출판물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일반 단행본을 비롯해 잡지, 독립출판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후원을 기다리는 책 중 기록을 활용해 만든 책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다양한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이 저마다 펴내는 기록을 보면 그만큼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하다. 재미난 기획이 보이면 기록을 담아낸 방식이 궁금해 어느새 주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중에 '기업의 역사'와 '도구'를 기록콘텐츠화해 내 눈에 '포착된' 두 개의 아카이브 북이 있다.

<호빵책 : 디 아카이브>

대개 10년 단위로 어느 시점을 기념하며 홍보 목적으로 기업의 역사를 담은 책을 보통 '사사(社史)'라고 부른다. 두꺼운 양장본으로 만들어 기념 후에는 책장에 꽂히면서 역할을 다하곤 하는 그 사사의 운명을 거스르는 책이 나타났다.
〈호빵책 : 디 아카이브〉는 우선 펼쳐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앙증맞은 표지가 눈에 띈다. 모양새를 보자면 '삼립호빵'이라는 로고가 인쇄된 띠지를 만들어 표지의 호빵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띠지는 삼립호빵을 먹어본 이라면 빵 바닥에 놀어붙어 미처 떼어내지 못하고 함께 입안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는 그 종이, 유산지로 만들었다. 168쪽의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삼립호빵의 탄생 이야기를 담은 'BRAND STORY'와 'ORIGIN', 호빵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LINE-UP', 동네슈퍼 주인, 작은 식당 운영자와 음식을 콘텐츠로 활동하는 디렉터, 작가, 유튜버 등을 통해 호빵 이야기를 풀어낸 'INTERVIEW', 이외 연대기별 광고, 디자인, 마케팅 방법과 부서별 담당자들의 인터뷰에는 삼립호빵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함께 현재와 미래를 인포그래픽으로 담아내고 있다.

<툴즈 Vol.1 비누>

잡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읽고 나서 라면 받침대로 쓰인 후 폐지로 버려지는 잡지와 소장용으로 고이 보관되는 잡지로 말이다. 소장용 잡지로는 〈GRAPHIC〉, 〈매거진B〉와 같이 하나의 주제 또는 하나의 소재를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잡지는 시의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 언제 봐도 유용한 자료라 모아놓으면 그야말로 진귀한 아카이브 컬렉션이 된다.
2021년 초에 발행된 〈툴즈〉은 더 본격적이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블랭크'가 '사람들이 더 깊이 있게, 더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이 매거진은 시원한 판형(210*290mm)에 무려 317쪽을 하나의 '도구', 곧 비누를 파헤치고 있다. 표지는 각비누 이미지를 배경으로 비누를 설명하는 영어 문장을 형압으로 새겨 놓았다. 본문은 비누의 탄생과 역사, 한국 비누의 역사 등을 담은 'BASIC'과 비누의 향을 미학적으로 탐색한 'AESTHETIC',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개인과 브랜드, 기업을 소개하는 'SUSTAINABLE FUTURE', 비누가 주로 소비되는 공중목욕탕을 서브 콘텐츠로 담은 'CULTURE', 예술작품 속 비누와 작가를 조명한 'ART'로 구성되어 있다.
'비누의 탄생과 역사'를 보여주는 연표, 역사적 배경, 인물, 회사와 관련한 비누 이야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사료 이미지를 배치하여 비누에 대한 배경지식을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 내용과 각주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연구자료를 통해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두 책은,
사료와 문헌을 통해 옛이야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람들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기록의 중요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개별 사료와 문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보여주느냐를 고민하며 다층적으로 접근하고 입체적으로 해석해 만들었기에 기록의 적극적 활용으로도 볼 수 있다. 거기에 사진과 이미지, 편집디자인에 집중해 대상과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시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해 '매일유업' 창사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매일 50〉은 회사의 역사 위주가 아니라 한국 낙농사를 정리한 총 2300쪽에 이르는 5권짜리 사사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기록원이 진행한 원로 예술인 구술사 프로젝트 중 일부 자료를 책으로 발간한 바 있는 출판사 '수류산방'에서 정성 들여 만들었다. 다큐멘터리 포맷을 차용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소개한 〈매거진 B〉는 현재까지 총 88호를 발행했고, 올해 10주년 맞이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잡지는 시간이 지나도 지난 호를 구입하는 이들이 많은데, 아카이브적 특징을 보이는 취향 저격 주제가 소장욕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위에 언급된 출판물들은 기업에서 투자한 예산을 기반으로 기획자가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만들어진 작업이다. 매력적인 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해 만들어지는 아카이브 북에는 특히 더 보이지 않는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 자사 홍보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줄 아는 눈 밝은 기업들이 기존의 틀을 깨고 가치 있는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다양한 주제의 아카이브 북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길 바란다.
〈호빵책 : 디 아카이브〉와 〈툴즈 Vol.1 비누〉는 현재 책을 만들고 있고, 한때 '라면 받침대' 용도로도 사용되는 잡지를 만들었던 필자에게 꼭 해보고 싶었던, 묻어둔 욕구를 스멀스멀 자극했다.

빅데이터, 시민의 '기록현상'을 말하다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이 말하는 **요즘 세대와 기록**

① 박현영 소장
② 〈2022 트렌드 노트〉

분야와 주제를 막론하고 종횡으로 폭을 넓히고 있는 서울 시민의 '활기 넘치는' 기록활동을 소개할 '2021 아카이빙북'의 대미를 장식해줄 콘텐츠를 정해야 할 즈음이었다. 주제와 함께 칼럼이 좋을까 에세이가 나을까, 내용을 돋보일 그릇까지 고민이 한창이었다.

언제부턴가 언급량이 부쩍 많아진 '메타버스' 현상과 기록을 연결해볼까, 고도의 컴퓨팅 환경과 빅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이미 인간의 추론과 지각 능력, 자연어 이해력을 어마무시하게 뛰어넘은 AI[Artificial Intelligence]시대에 기록의 의미를 짚어보면 어떨까, '아, 이미 간접 경험을 소개해온 AI 관련 영화와 접목해 봐도 신선하겠구나'… 아이템은 몇몇 전문가와 논의를 거치며 기록의 미래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로 좁혀지고 있었다.

그 무렵 우리의 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풍향계' 〈트렌드 노트〉 2022년 버전이 시중에 배포됐다. 트렌드 보고서에 가까운 책은 수백만, 수천만 건의 미시 데이터가 합쳐져 형성하는 거시적 흐름을 7개 키워드로 소개하고 있었고, 시간, 남자, 현실, 연대, 열정, 과금과 함께 '기록'이 있었다!

최근 3~4년 사이,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에 없던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 시민들이 기록과 아카이브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현상을 감지해온 터, 기록 분야에서 진행 중인 의미심장한 흐름의 실체를 확인한 '느낌적 느낌'이랄까, 시민기록활동을 담는 아카이빙북이라면 알아보아야 했다. 매해 〈트렌드 노트〉 발간을 총괄하고 있는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과 마주앉아 빅데이터로 관측한 '시민들의 기록생활'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나'를 드러내고 '진심'이 중요한 신념의 시대

우선 눈에 띈 부분이 '라이프스타일의 시대에서 신념의 시대로'라는 부제. '개취[개인취향]'와 안목이 강조되는 흐름이 여전하고, 그간 다소 고전적이고 비주류적 가치로 인식되던 '신념'을 시대적 키워드로 등극시킨 배경이 궁금했던 것이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행위인 신념이 이전에는 굉장한 대의나 철학적 지향으로 드러났다면 요즘은 개인의 일상적 선택과 연동되고 있어요. 예로 '우리에겐 하루 세 번, 지구를 구할 기회가 있다'는 한 식품기업의 광고 카피를 볼게요.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를 소비, 취향 같은 나의 구체적인 일상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대표적인 유행어인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할러윈에 진심, 딸기나 '민초' 아이스크림에 진심, 핑크나 스티커에 진심… 이 진심은 취향인 동시에 선택과 몰입이에요. 라이프스타일이 '킨포크'처럼 취향의 모방을 드러내는 개념어였다면 신념은 '나'를 보여주는 선택과 몰입이라는 개인의 서사를 포함하고 있어 뚜렷한 변화로 읽혔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에 인문학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생활변화관측소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얼핏 엿보인다. 박 소장은 트렌드 변화 포착 단계를 빅데이터 모니터링과 이를 정밀하게 해석해가는 단계로 구분했다.

"기본적으로 매달 1억2000만 건의 소셜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 1만9000개가 넘는 키워드의 등락, 추세를 보며 '뜨고지는' 변화를 파악합니다. 신조어보다는 동사, 보통명사의 추세를 많이 보려 해요. 여기에 저희만의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 단계가 있는데, 전자가 기업이나 기관 등 클라이언트와 소통이에요. 이들의 고민과 질문이 변화를 반영하거든요. 후자는 저희가 펴내는 '생활변화관측지'를 통해 관통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눈에 탁 띄는 '블랙 스완'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흐름을 좇아 '회색코뿔소'를 찾는 작업이에요. 이를 통해 매달 7개의 중요한 인사이트를 선별해요. 연도별 〈트렌드 노트〉는 이를 종합한 결과이고요."

디지털 환경, 미제너레이션 그리고 시간

2022년을 앞두고 그 종합결과에 '기록'이 등장한다. 분석에 따르면 '기록하다'라는 키워드 언급량은 꾸준히 상승해 2017~2019년 3년간 매 분기 4000건 대였다가 2020년 상반기 각 5000건 대와 6000건 대, 2021년 상반기 7000건 대로 증가했다. 이 수치가 나타내는 추세와 함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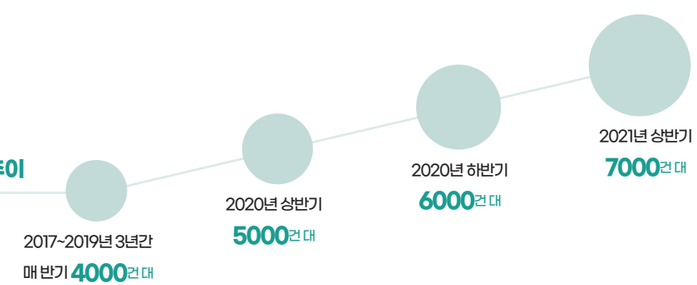
"수치에서 분명한 부분은 '기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나아가 그 관심이 단기적이지 않고 추세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록은 신념의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기록 자체가 나의 진심, 몰입과 닿아 있으니까요. 그럼 과거 진중해보였던 이 기록이 왜 뜰까, 배경은 여러 변수가 작용한 결과로 보여요. 첫 변수는 수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등 너무나 쉽고 편하게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일 거예요. 또 하나는 '나'에 천착하는 '미제너레이션Me-Generation'의 발현 양상이라는 진단이에요. MBTI 같은 성향이나 심리 테스트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려 하고 수많은 '진심'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기록은 '나를 재발견하고 나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간. 박 소장은 7개 중 또 하나의 키워드인 '시간'이라는 주요 변수를 제시했다. 주말을 허락한 주 5일제 이후 찾아온 주 52시간제로 사람들은 저녁시간을 확보했다. 주말 단위로 진행되던 캠페인이나 계획의 주기가 매일매일로 바뀌었다. 몰아서 즐기는 '불금'을 지나 '미러클모닝'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매일의 '챌린지'에 도전하고, 하루를 다시 작은 목표로 구성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런 흐름에 코로나19 사태는 강력한 촉매제로 기능했다.

"우리가 정리한 '코로나19 재난'을 압축한 표현 중 사람들에게 '공간은 제약하고 시간은 늘렸다'는 것이 있어요. 특히 위기 단계가 높았을 때는 모두가 24시간을 스스로 관리해야 했어요. 시간운용법을 잘 모르던 학생들은 '현타현실 자각 타임을 뜻하는 신조어' 경험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시간 관련 상품이나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주목받을 것이라 예상했죠. 한편으로 갑자기 시간이 생긴 사람들은 이제 탐닉할 것들을 찾습니다. 향수, 주식, 와인 등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특정 주제나 분야가 부상한 배경일 거예요. '기록'도 그중 하나로 봤어요. 기록만큼 자신의 성취와 시간관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행위도 드무니까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 그동안 과장광고, 파워블로거의 일탈 등으로 '블로거지'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던 '블로그'의 부활이에요. '기록하다' 데이터와 유사한 추세로, 2019년까지 1000건 대였다가 2020년 하반기 2000건 대, 2021년 상반기에는 3000건 대가 됩니다. 내리막길을 걷던 블로그가 소환되는 것은 타 소셜미디어와 차별화된 특성 때문으로 보여요. 검색과 구독 핵심인 유튜브, 대개 '연출된' 최고의 순간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인스타그램 문법과 달리 블로그는 '로그'만 하면 매일의 일상을 남길 수 있어요. 뻘소리를 해도 무방하고 나에게만 의미 있는 과정과 실패한 사연까지 길이에 상관없이 쓸 수 있으니 개인의 아카이브성을 표출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채널인 거예요.

물론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는 영리하게 여러 채널을 동시에 활용할 줄 알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블로그를 어떻게 대하고 활용하는지에 주목하면 젊은 MZ세대가 생각보다 기록친화적인 세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 소셜미디어에서 '기록하다' 언급량 추이



생활변화관측소가 발간하고 있는 트렌드 변화 분석 간행물

"수치에서 분명한 부분은 '기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나아가 그 관심이 단기적이지 않고 추세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록은 신념의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기록 자체가 나의 진심, 몰입과 닿아 있으니까요. 그럼 과거 진중해보였던 이 기록이 왜 뜰까, 배경은 여러 변수가 작용한 결과로 보여요. 첫 변수는 수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등 너무나 쉽고 편하게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일 거예요.

긍정적 몰입 이끄는 아카이브에 사회가 주목하길

그렇다면 비즈니스 영역과 젊은 세대를 아우르며 양적으로는 확실히 뚜렷한 흐름이 된 '기록현상'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일까. 나아가 어떻게 하면 기록을 매개로 하는 긍정적 몰입을 부추길 수 있을까. 박현영 소장은 옳고그름이나 긍부정 평가 대신 현상 자체에 내포된 목적성을 활성화하는 인프라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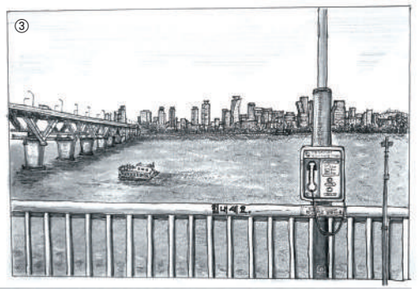
"처음과 끝이 모호한, 거의 무한대의 데이터가 쌓이고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는 내게 의미 있는 기록, 필요할 때 접근 가능한 검색이 더욱 중요해요. 기록과 검색은 개인의 인사이트와 미래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인 거죠. 특히 온라인 기반 기록은 공유를 기본값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탑재하고 있어요.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변화의 진폭이 크지만 어느 때보다 몰입하기 좋은 환경에서 긍정적 몰입을 경험하고 나누는 데 좋은 도구인 기록에 사회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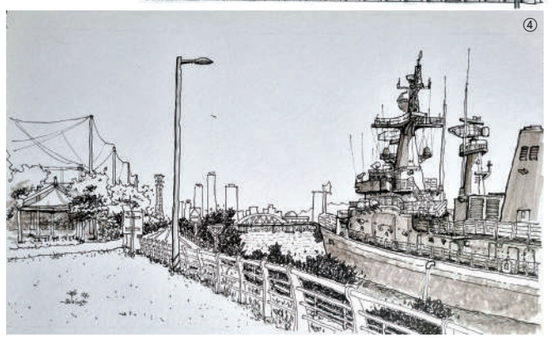
한강, 서울_ 시민의 기억이 흐르다

①

대한민국 중심인 서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자연이자 역사인 한강!
서울기록원 2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한강, 서울_ 시민의 기억이 흐르다' 전시에서는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한강의 모습을 다양한 기록으로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전시실 한켠을 빛내는 기록이 있으니, '한강의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된 시민기록 수집 이벤트 당선작들이다. 공간과 계절, 낮밤의 시간, 위로와 위안… 시민들이 기억하는 한강은 수많은 표정으로 벅차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기록이 된 시민 작품을 화보로 소개한다.

②


③


④

⑤

⑥

①
김태완 〈초여름 한강의 일몰〉
②
정소영 〈칵테일Cocktail〉
③
이정래 〈위로의 행간〉
④
박종희 〈서울함공원 걷던 날〉
⑤
김경민 〈매일 봐도 매일 예쁘다〉
⑥
김경호 〈옥수동 두무개다리 터널〉
⑦
이정숙 〈한강 라이딩〉

⑦

⑧

⑨

⑧
한혜주 〈하늘 아래 한강, 한강 옆에 우리〉
⑨
손용화 〈활기찬 한강의 주말〉
⑩
황정욱 〈거울나라의 세빛섬〉
⑪
유지연 〈여름 밤〉
⑫
이희성 〈청담대교〉
⑬
이정훈 〈2019 제13회 장애인 수영 한강 건너기 대회〉
⑭
류성희 〈딸과 함께 본 한강 낙조〉
⑮
이진수 〈한강공원에서〉

⑫

⑩

⑪

⑬

⑭

⑮

2021 서울아카이빙북

서울은 시간을 기억합니다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발행일 2021년 12월
제작 행정국장 김상한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학예연구사 고아름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서울기록원
문의 02-350-5600 | archives.seoul.go.kr
기획·제작 P&WG손•(주)매너티
디자인 김해정
인쇄 SJC성전

ISSN 2765-1428 02
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14-10

※〈2021 서울아카이빙북-서울은 시간을 기억합니다〉 필진으로 김경환, 박은아, 손정미, 송추향, 서화열, 오지은, 이경희 님이 참여하였습니다.

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14-10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05
9 772765 142004
ISSN 2765-1428

서울기록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 02-350-5600 • archives.seoul.go.kr